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平信徒 事役의 教育牧會的 根據 考察

(요한 12장의 教育觀에 의한)

지도 1주 1회 1수 1식




2000년 8월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 전공

김 갑 수

# 김갑수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주심    박    완    리      
위원    김    희    복      
위원    이    수    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년 6월

# 목 차

|                                |    |
|--------------------------------|----|
| 제 1 장 서 론 .....                | 1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 2  |
|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           | 3  |
| 제 2 장 요한 칼빈의 교회관 .....         | 5  |
| 1. 로마 교회와의 비교 .....            | 5  |
| 2. 직임을 중요시하는 교회 .....          | 14 |
| 3. 기구(Institution)로서의 교회 ..... | 16 |
| 제 3 장 요한칼빈의 목회와 교육 .....       | 20 |
| 1. 가견적 교회 중심 .....             | 20 |
| 2. 성직자 중심 .....                | 22 |
| 3. 하나님 주권 중심 .....             | 26 |
| 제 4 장 평신도와 목회자 .....           | 32 |
| 1. 평신도 .....                   | 32 |
| 2. 목회자 .....                   | 43 |
| 제 5 장 평신도 사역의 근거 .....         | 53 |
| 1. 성경적 근거 .....                | 53 |
| 2. 시대의 요청에 따른 근거 .....         | 55 |
| 3. 매슬로우 심리이론을 활용한 목회적 근거 ..... | 59 |
| 제 6 장 요약 및 결론 .....            | 68 |
| 1. 요약 .....                    | 69 |
| 2. 결 론 .....                   | 72 |
| 참고문헌 .....                     | 74 |
| Abstract .....                 | 78 |

# 제 1 장 서 론

20세기 경험중심의 진보주의 교육학자로서 8.15이후 우리 나라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존 듀이(John Dewey)<sup>1)</sup>는 “모든 교육은 개체적인 자아가 인류의 사회적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시작된다. 교육을 통하여 개체적 자아는 인류가 공동으로 집대성한 지적, 도덕적 유산에 참여하게 되며 교육을 통하여 인간은 인류 문명의 상속자(Inheritor)가 된다”고 말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교육을 논할 때 인간의 자각과 행동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의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교회교육(기독교 교육)<sup>2)</sup>과 일반교육이 크게 다를 바 없으나, 교회교육이 인간 영혼 구원(救援)과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그 고유한 교육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점에 대해 쉐릴(Lewis J. Sherrill)은 “기독교 교육이란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교회로부터 유리(遊離)된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적 요청으로서 교육 없이 기독교는 계속 존재할 수 없다”하여 일찍부터 교회 교육을 강조하였다.

교회교육의 원천인 성경(聖經)중에서, 구약(舊約)에 나타난 교육의 중심인 ‘쉐마’ (שֵׁמָרָה)를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

1) John Dewey(1859-1952)도 미국 Burlington에 있는 White Street Congregational Church 의 유능한 교회학교 교사였다.

2) 1946년에 기독교교육이라는 용어가 채택되었다. 일반 교육이 이성의 산물이고 문화적 소산이기에 인간성의 연장선에 있는데 비해,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계시(Revelation)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삶의 의의와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인간 존재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돕는 기능이며 과정(process)이다.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6:4-9)고 말함으로써 아주 철저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신약(新約)의 교육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聖殿)에서 백성과 제자들을 가르치심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20) 하심에 따라, 제자들이 나아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고전 2:13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등 교육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이 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르침을 살펴볼 때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육하는 교회이어야 한다. 특히 전인교육과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오늘의 교육적인 과제 앞에서 교회는 그 일반적 구성원인 평신도를 교육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 책임은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하는 소중한 사역으로서 성직자의 목회사역과는 구별되지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평신도 사역의 기초가 된다.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성경이 말하는 평신도(平信徒)의 사명은 인간의 조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의 조건 속으로 들어가는 평신도의 사도직(使徒職)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단순히 성직자를 ‘돕는 자’로서의 역할만으로는 심히 부족하다. 평신도는 이 세상의 광대한 영역에서 그 자신이 ‘교회로서’ ‘작은 그리스

도'로서 현실적 필요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감을 지닌다.

따라서 평신도 사역은 평신도의 영역과 지위를 확장하거나 격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벌써 거룩한 소명(召命)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소명 의식 하에서 평신도로서의 자기 정체성(identity)을 갖게 하여 교회의 균형 잡힌 목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필자는 본 고(考)를 논술함에 있어 세계적인 신학자가 없는 한국교회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목회자(牧會者)를 많이 배출한 우리 나라의 목회적 토양(土壤)을 고려하였고, 교회가 그리스도안에서의 공동체(共同體)모습을 회복하려는 전제하에 교회의 주 구성원인 평신도가 소명(召命)되어진 신자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우리 나라 대부분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회(Presbytery)<sup>3)</sup>의 기초를 마련한 '요한 칼빈'(John Calvin)<sup>4)</sup>의 교회관에 근거하여 평신도 사역의 교육목회적 근거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필자는 칼빈주의<sup>5)</sup>(Calvinism)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칼빈주의는 신(神)

---

3) 현재 한국에는 등록교회 약 3만 7천여 교회에다 미 등록교회까지 합하면 그 수는 약 5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그 중에 장로교회가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노균, "한국교회의 설교에 대한연구"(Fuller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학위논문, 2000), p.3.

4) John Calvin(1509-1564)은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신학자로서 루터가 유명한 95개조를 비텐베르크 성문 교회에 내 걸던 8년 전 프랑스 노용에서 출생하였다. 루터와는 한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를 스승으로 존경하였다. 그러나 성만찬의 논쟁 때문에 루터와는 개혁사상을 달리했다.

5) 칼빈주의는 칼빈의 사후(死後)에 칼빈의 교훈을 따르는 신학자들이 17세기초에 형성한 신학체계를 말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정(豫定)을 강조하고 개인 영혼의 구원과 함께 그리스도교적 역사와 사회와 가치관을 수립하려는 적극적인 사상을 소유하였기에 오늘날의 서구 문명과 문화가 있도록 공헌한 바가 크며,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근거가 된 것은 1920년대와 1930년대 초 우리 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 때이다.

과 인간(人間)에 대한 관계를 언급하는 포괄적 신학체계를 말하며, 그 사상적 핵심은 “만물(萬物)이 주(主)에게서 나오고 주(主)로 말미암고 주(主)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世世)에 있으리로다”(롬11:36)는 성경 말씀이다. 따라서 칼빈주의자들은 역사의 모든 현상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임재(臨齎)하심과 섭리(攝理)를 인식하며 특히 구원(救援)의 역사에서 인간 자신을 의존하는 흔적을 제하고 하나님의 은혜(恩惠)에만 자신을 맡긴다.

필자는 앞선 세대(世代)의 글을 포함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평신도에 관한 저서들을 칼빈주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문헌연구의 특성상 한 이론의 시작과 변천의 과정 그리고 오늘에 있어 재해석되기까지 그 모든 것이 본 고(考)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지는데 먼저 1장은 ‘서론’이고, 2장 ‘요한 칼빈의 교회관’에서는 평신도 사역의 기초가 되는 교회의 정의와 본질을 칼빈의 입장에서 언급한 뒤, 3장 ‘요한 칼빈의 목회와 교육’에서는 교사(教師)로서의 목사(牧師) 사역을 지지했던 칼빈의 교육목회(教育牧會)를 살펴보고, 이어지는 4장 ‘평신도와 목회자’에서는 바람직한 평신도 사역을 위한 평신도와 목회자 각각의 이해와 상호관계성을 발전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5장 ‘평신도 사역의 근거’에서는 평신도 사역의 근거를 크게 성경적 근거와 시대의 요청에 따른 근거 그리고 Abraham Maslow의 심리이론을 활용한 목회적 근거 등의 세 가지 관점에서 논하였고, 마지막 6장에서는 본 고(考)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뒤 ‘결론’을 내리고 본 연구에 대한 이해의 마무리로 필자의 견해를 표현했다.

## 제 2 장 요한 칼빈의 교회관

본 장에서는 평신도<sup>6)</sup> 사역에 있어 그 중심 영역(領域)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생명싸개로 이해한 요한 칼빈의 교회관을 소고한다.

### 1. 로마 교회와의 비교

칼빈주의는 교회의 속성(屬性)을 대략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Nicaea - Constantinople Creed)에서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使徒)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구절을 채용한 것이다. 반면에 로마 카톨릭 신학자인 Bellarmino<sup>7)</sup>는 교회의 속성을 15개 이상으로 나누기도 했지만 오늘날은 대개 네 가지로 나누어 취급한다.<sup>8)</sup>

#### 1) 교회의 통일성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회의 통일성을 말할 때 그것은 로마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을 뜻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의 한

---

6) 자세한 것은 각론에서 언급하겠으나, 대체로 성직자가 아닌 일반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광의적인 개념 하에서의 평신도는 법률적인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되어지는 교회의 근본적인 용어이다. 여기에는 평신도로 하여금 교회론적 존재의 자각을 각성케 하는 목적이 들어 있기에 그 사역에 있어 교육하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필연이 함축되어있다.

7) Bellarmino(1542-1621)는 이탈리아의 카톨릭신학자로서 프로테스탄트주의를 공격하고 로마 교회와 교황권을 변호한 대항개혁 이후의 학자요 추기경이다

8) 교회의 속성을 L.Berkhof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의 3가지로 보았으나 G. Aulen은 여기에 사도성과 생명성을 더하여 다섯 가지로 설명했고, 박현종 박사는 사도성과 무오성을 첨가한 다섯 가지를 주장한다. 개혁주의 학자들이라도 그 견해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행정조직에 소속함으로써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함에 반해, 칼빈주의 곧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교회의 통일성을 논함에 있어서 성령(聖靈)의 통일성을 표준으로 가진다.

Bavinck<sup>9)</sup>는 말하기를 성령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①그리스도를 머리로 함(엡 1:22, 5:23), ②같은 성령으로 교통함(롬 12:5, 고전 6:17, 12:13, 엡 4:4), ③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동일함(엡 4:3-5)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박형룡 박사는 “교회의 내면적 통일은 신도들의 신앙고백과 그리스도인의 행위에서 그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예배(公禮拜)에서 동일 성례(聖禮)의 참여에서 자연 외면적 표현을 추구하며 얻는다” 고 말하여 영적 통일성이 외면적인 가견(可見)적 교회의 통일성으로 나타남을 말한다.

칼빈은 불가견적 교회뿐 아니라 가견적 교회의 통일도 심중(心中)에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의 저서에서 찾게된다. 그는 먼저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제4권 제1장 첫머리에서 “참된 교회의 일치를 보수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교회가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어머니인 때문이다”하여 참된 교회의 일치를 말하였다. 이것은 그가 분명히 가견적 교회의 통일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그는 교황주의자를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나 교회 안에 세례(洗禮)가 남아 있고 섭리(攝理)가 작용하는 한 약간이지만 교회의 흔적이 남아있고 교회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칼빈이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말씀과 성례만을 인정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그의 교회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거요, 결코 종교적 친교의 본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

9) Hermann Bavinck(1854-1921)는 화란 캄펜 신학교와 암스테르담 대학의 교의학과 변증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세계적인 칼빈주의의 대표자이다.

## 2) 교회의 거룩성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 17-22절에서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 논하는데 이 교회가 완전히 거룩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것은 잘못된 교회론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sup>10)</sup> 칼빈은 또한 로마교회가 주장하는 성례에 대하여 기독교 강요 제4권 19장의 서두에서 말하기를, “칠 성례 중 나머지 다섯”<sup>11)</sup>은 그릇된 성례라고 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성례전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나 그것들이 진정한 성례가 아님을 증명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른바 다섯 성례전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규정되지도 않았고 초대교회(Primitive Christianity)에서 시행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칼빈은 성례전을 세밀하게 분석 비판하면서 “로마교회가 견신례(堅信禮)가 없으면 세례는 옳게 시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악한 일이며, 구원을 위해 견신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또 “견신례가 하나님의 세례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은, 세례에서는 머리 위에 부어질 뿐이지만 견신례에서는 이마에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견신례는 고대교회의 관례로서 확인될 수 없다”고 평했다. 고해성사(告解聖事)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회개(悔改)는 성례전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고 외면적인 회개는 단순한 표적으로서의 성례전이 고 내면적인 회개만이 성례전이며, 또한 그 자체라고 하였다.

또한 “세 번째의 거짓된 성례전(聖禮典)은 종유례(終油禮)인데, 이것은 사제(司祭)에 의하지 않고는 행해질 수 없는 것으로 임종시 주교에 의하여 성별된 기름을 부음으로써 죄의 용서와 육체상 병고의 경감, 혹은 그렇지 않

---

10) The imperfect holiness of the church does not justify schism but affords occasion for the exercise within it of the forgiveness of sins.

11) 나머지 다섯 성례란 견신례, 고해례, 안수례, 결혼례, 종유례이다.

으면 적어도 ‘영혼의 구제’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유의하지도 않고 사도를 방불케 하는 연극에 불과하다”

네째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9장 34-37절의 서두(序頭)에서 “에베소서 5장 28절의 잘못된 해석으로 결혼이 성례전이라는 주장함은 잘못이다”고 밝히고, 혼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하고 거룩한 질서이지만 성례전은 단지 하나님의 일일 뿐 아니라 약속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외형적인 의식이라는 사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례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적 안수(按手)에 대해서도 칼빈은 “안수에 의해서 분배되는 기적적인 힘과 두드러진 역사가 그쳐졌으니 그것은 단지 일시적이었고 만일 그 무렵 사도들에 의해서 행해지던 이 직무가 지금도 교회 안에 남아 있다면, 안수도 역시 보존되어야 할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즉시 나타나는 그런 안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없으므로 현재에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했다.

이상과 같이 칼빈은 칠 성례 중 나머지 다섯 성례에 교회의 거룩성의 요소를 두고 있는 로마교회의 견해가 그릇되었음을 밝혔다.

칼빈과 개혁 교회(Protestant)는 교회의 거룩성을 이증으로 생각한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중보적(仲保的) 의(義)를 힘입음으로써 객관적인 점에서 절대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이요(엡 2:20, 마 16:18).

둘째는, 교회가 세상에서 분리되고 성별(聖別)된 하늘나라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신분상 거룩하다는 것이요(벧전 2:9, 고전 1:2).

셋째는 비록 교회 안의 신자들이 완전히 성결하지는 못하나 거룩한 성령의 역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좇아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을 목적 삼는 내면적 생활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를 볼 때 칼빈의 거룩성의 개념은 반증적(反證的)인 성격으로 서술되었고, 「프로테스탄트」파의 삼중적인 거룩성의 개념의 성경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조직적이며 보다 발전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3) 교회의 보편성

칼빈은 1536년 기독교 강요를 첫 출판하면서 사도신경(使徒信經, The Apostles' Creed)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천사나 사람들로 선택된 자들의 총체적인 거룩한 보편적(카톨릭)교회를 믿는다”하였고, “보편적 교회란 나라나 거리, 혹은 지역의 차이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의 교리에 일치하는 다수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보편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καθολου*인데, 이것은 후에 형용사로 *καθολικος*라 사용하게 되었고, 라틴어로는 *Catholicus*, 또는 *Universalis*로 번역되었다. 고전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개별적인 것과 구별되는 보편적인 것을 말할 때, 그리고 특수한 것, 부분적인 것과 구별되는 전체적인 것을 말할 때 사용되었다. 그후에 이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신약(新約)교회에 처음 적용된 것은 Ignatius<sup>12)</sup>에 의해서인데, 이 보편적 교회란 교회의 공간적인 보편성 곧 인간이 살고있는 지구의 모든 영역 안에 있는 교회의 현존과 교회의 시간적 보편성 곧 역사의 모든 시간 속에 있는 교회의 현재를 포함하는 의미였다. 그러다가 3세기 이후에는 여러 이단(異端)들이 일어나게 되자 보편성이란 말을 더욱 강조하여 참된 교회의 유일하고 정당한 교회의 표지로서 사용하게 되었다. 급격한 이단들의 발생은 참된 공동교회를 알려주는 어떤 특성들을 지명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12) Ignatius(35?-107)는 시리아의 이교도 가문에서 출생하여 기독교를 박해하였으나 회심하여 안디옥의 주교가 되었고 베드로의 후계자로 불리운다.

그후 Augustinus<sup>13)</sup>는 Konatists가 황제의 교회에 대한 간섭을 반대하면서 교회의 분립을 주장하고 자신들만이 유일하고 참된 실제적인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데 반대하여 카톨릭(Catholic)이란 헬라이 καθολικός에 어원을 두고 있는 ‘전체’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는데, 이것은 세계적 교회를 의미하였고 그의 카톨릭 교회의 개념에는 국가적 민족적 차별의식이나 분열의식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보편성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도 많이 있었으나(시 147:19-23, 사 2:2-4, 호 1:10, 창 12:3),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었던 민족교회였고, 보편성을 가진 교회로 발전한 것은 신약에 와서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오순절 성령강림이후 사도행전에서는 민족교회에서 보편적 교회로의 발전과정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편적 교회가 가견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비가견적인 교회서도 반드시 성취되어 질 것이다.

Robert Adolfs는 보편성을 넓이의 차원과 깊이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넓이의 차원은 지리적 표면적인 차원이며 깊이의 차원은 인간의 영혼과 마음에 대한 차원이다. 먼저, 넓이의 차원은 교회가 전세계 모든 곳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이며 보편성은 전체주의자나 힘의 보편주의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회는 이 차원의 보편성만을 지나치게 과대 평가하여 로마교회처럼 크고 강함을 나타내려는 모순에 빠졌다.

보편성의 깊이의 차원은 모든 이질적 문화와 사상에 대해서 다양한 마음과 영혼의 활동을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처럼 동화되어서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시킨다거나 로마교회처럼 자기중

---

13) Augustinus(354-430)는 초대 기독교의 교부로서 인간의지의 변화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그의 저서 “신국론”은 교회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심주의에 빠지는 일이 없이 보편성의 참다운 깊이에 관심이 필요하고, 모든 인류와 민족과 문화를 포용하여 바울(Paul)<sup>14)</sup> 서신(書信)에 나타난 보편성을 추구해야만 한다.

외면적인 보편성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의 모든 족속과 때와 장소에 대하여 필요하며, 내면적인 보편성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의 진리의 충만을 선포하셨고 완전하고 선한 모든 것을 교회에 주셨음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차원이 있다면 그것은 시대적인 보편성이다. 시대적인 보편성의 연속성 안에서, 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 난공불락이며 비 파멸적인 존재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초기 교회시대에서도 교회의 존립문제는 위기와 위협 속에서 자주 의문시 되어왔었지만, 그러나 교회의 보편성의 연속성 개념은 모든 위험한 상황이나, 박해 속에서도 계속되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교회가 비 파멸적 본질에 기초했기 때문이라는 것보다는, 교회가 약속에 근거했으며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결국 교회가 부분적으로는 멸절 될 수도 있지만 보편성의 차원에서 볼 때 교회는 계속하여 확장되고 발전되어 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교회의 사도성

로마교회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자기들만이 사도적(使徒的) 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첫째로 조직의 면에서 로마교회와 함께 헬라 정교회(正敎會, Orthodox)와 영국교회는 교회의 근원과 권위가 직접 사도들에게 소급된다고 주장한다. 이 감독교회들은 성례는 반드시 교회의 신부들에 의하여 거행될 것이라고, 그 신부들만이 사도 때부터 안수(按手)로 말미암아 직접 사도적 계승을 받

---

14) 흔히 '사도 바울'로 불리며 기독교 역사에 있어 최고의 사상가이다.

왔다한다.

둘째로 교리 면에서 로마교회는 그들의 교황권은 사도 ‘베드로’(Peter)<sup>15)</sup>에게서 비롯되었으며 베드로 사도는 이 천국의 열쇠를 직접 받은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근거로 하여 주장한다. 그들은 이 성경 구절에서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이며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초대 교황이 되었다고 하여 로마교회의 독특한 사도적 계승을 주장한다.

칼빈은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그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제6장에서 “로마 성좌의 우위성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교리 면에서 베드로가 초대교황이라는 로마교회의 주장을 반박하기를 신약(新約)에서 그들의 의견을 확증하기 위한 성구가 마태복음 16:18-19와 요한복음 21:15 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들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리스도의 양의 무리를 기르는 자가 온 교회에 군림하는 권능을 위임받았다는 것, 또 ‘매며 또 푼다는 것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일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베드로 이외 모든 장로들에게도 위임받은 교회를 키우라고 했고(벧전 5:2), 또한 ‘매며 푼다’는 말이 요한복음 20:23에서 ‘죄를 용서하지 않고 두는 것’과 ‘용서한다’는 것으로 해설되었는데 바울이 이점을 “복음의 일꾼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일을 위임받고 있으며, 동시에 이 은혜를 배척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설하는 것을 보아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로마 교황의 우위성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할 반석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황주의자들이 단지 ‘베드로-반석’이라는 이름만을 방패삼아서 전 교회에

---

15) 예수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이고 이름 뜻은 ‘반석’이다.

걸쳐 그 주권을 확립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헛된 일로서,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과 형제들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반석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시는 것으로 ‘바울’이 말 한대로 이것만이 유일한 기초인 것이며, 이것 말고는 아무 것도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 했다(고전 3:11)

둘째로, 조직적인 면에서 볼 때도 로마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초대 교황으로 하는 사도적 계승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것임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6장 14-15항에서 증명했다. 즉, 바울이 로마에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베드로가 그 곳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주관했다는 것은 입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빈약하고 막연한 증거라 했다. 즉, 바울이 로마에서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흠어져 있는 많은 교회에 편지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되고 입증도 되지만, 로마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사도적 계승을 이었다면 어찌하여 바울에게서 발견되는 당시 교회의 지도자로서 권위와 지위의 증거가 없느냐는 것이다.

한스 쾅(Hans Kung)에 의하면 “사도성은 교회의 본질을 결정하는 다른 모든 속성인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독특한 것이어서 반복될 수 없다. 부활(復活) 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에게서 직접 사도로 임명받았다는 특권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자마자 바울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12사도와 똑같은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도직을 어느 개인이 대신하든지 대표할 수 없다. 로마 카톨릭이 사도직을 개인이나 제도상의 교회가 계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誤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교회가 사도적 계승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들의 교훈을 계승하는 것이다. 칼빈주의 교회관은 사도직을 단회성으로 보고, 사도의 교훈(성경)에 근거한 교회를 사도적 계승이 있는 교회라고 말한다. 즉 교리와 정치, 예배의식, 직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라는 의미에서 그 조직의 사도적 계승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정당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혹자(或者)는 교회가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 사도적 계승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sup>16)</sup> 이것은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그대로 이어받아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충분히 동의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구원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새로운 신분의 사람들로 존재한다(요 5:24).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이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 보다 무엇을 하느냐?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救援)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딤후 2:4)에 일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어떤 일보다 앞서는 것이다.

## 2. 직임을 중요시하는 교회

칼빈의 교회는 직임(職任)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이다. 칼빈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본적인 요소가 말씀과 성례이기 때문에 즉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성례를 올바르게 행하고 바른 권징(勸懲)을 시행할 때 직분은 이 세상에서 교회의 존재를 위하여 그 역할을 다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직분의 의미를 강조하여 교회의 직분자들은

---

16) 옥한흠, H. Kraemer, Hodkendijk 등이다.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대변하는 자들이라고 하며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직분은 고결하며 동시에 필요한 기능이라고 하였다.

1541년과 1561년의 교회헌법에 보면 칼빈은 네 가지 형태의 직분을 말하고 있다. 즉 목사(pastor), 교사(doctores), 장로(presbytere), 집사(diacani)이다. 이것은 ‘부처’<sup>17)</sup>(Martin Bucer)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칼빈은 ‘부처’가 생각만 하고 실천치 못한 것을 이 네 직분을 옳다 생각하고 제네바 교회에 적용한 것이다.

직분의 제일 첫 형태는 목사이다. 칼빈은 목사직을 에베소서 4장 11절의 주석(註釋)에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다. 칼빈은 이 해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목사란 양 무리를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 그는 나는 목사들이 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교사가 목사와 다른 점은 교회의 권징이나 성례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사가 구약(舊約)의 선지자에 해당된다면 목사는 사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칼빈은 목사직이 교회의 전체적인 활동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알았다. 모든 다른 직분자들은 목사가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칼빈은 목사 즉 말씀의 수종자(隨從者)를 교회 직분의 중심으로 생각한다. 목사는 이러한 직분 때문에 지역 교회의 지도자이며 치리를 포함하는 말씀의 봉사자라는 뜻에서 장로들이 목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 가지 덧붙여 말한다면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 Religion)에서 직분의 카리스마(Charisma)적인 성격을 별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의 교회론에서 목사직을 교인의 공동체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보다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교인의 공동체에서 목사를 선택한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한다.

---

17) M . Bucer(1491-1551), 독일의 신학자로서 프로테스탄트와 로마카톨릭의 합동을 위하여 노력한 종교개혁자이다.

칼빈은 에베소서 4장 이외에도 로마서 12장 7절과 고리도전서 12장 27절에서 그는 두 가지 형태의 직분 즉 다스리는 일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은 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직분의 형태가 은사(恩賜)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도외시하지 않는다. 위 두 구절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가르킨다. 그런데 칼빈이 여기서 장로를 말하면서 설교권을 가진 장로와 동일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때 장로는 설교하는 직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칼빈은 말씀을 생각할 때 언제나 교회를 염두에 두었다. 말씀과 교인의 공동체와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마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은 서로가 견제를 받으며 연결되어 있고 동일하지 않지만 교회를 봉사한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하다. 즉 단일성 속에 다양성이 그리고 다양성 속에 단일성이 있는 것이다.

칼빈은 목사의 소명(召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소명을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구별하는데 내적 소명은 우리 마음에 닿은 좋은 증거라고 하였다. 칼빈은 봉사직에 관하여 말하면서 봉사자는 목사나 교사나 장로나 집사이든지간에 이러한 소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소명에 대하여는 각자가 응답해야 하는데, 각자가 응답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직분 자체는 기분에 좌우되거나 어떤 내적인 마음가짐에서 유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말씀을 수종(隨從)드는 직분에는 변함이 없다.

### 3. 기구(Institution)로서의 교회

칼빈은 교회를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은 불가분리의 관계로서 교회는 성경 에베소서 4:4 대로 유기적 공동체라 보

고 있다. 여기에서 칼빈이 루터와는 다른 면이 나타난다. 즉 ‘교회’를 신앙공동체(Communio Sanctorum)로 강조하는 것은 루터인데,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제정하신 기구(Institution)임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고백을 하는 주체인 사람에게 역점을 두는 ‘신앙인의 공동체’ 개념보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사람들에게 신앙하도록 말씀을 주시며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존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기구로서의 교회개념’이 선행(先行)함을 본다. 따라서 칼빈은 일차적으로 교회를 조직적인 기구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신자의 지체됨의 개념에서이다.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보존하시는 것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교회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충성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개인의 성화(聖化)가 교회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가견교회(the Visible Church)에 충실하게 애착을 갖는 것은 그의 의무이다.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불가견 교회’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칼빈 자신은 성경이 교회를 언급할 때 때때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실제로 있는 교회 - 양자(養子)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성령의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회원들이 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교회 - 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불가견 교회는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통해서 신앙에 입문하며, 성찬(聖餐)에 참여함으로 참된 교리와 선행(善行)에 있어서 하나됨을 선언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기로 동의하며, 그리스도께서 말씀선포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을 준행 하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인류 공동체 즉, 가견 교회와 전혀 무관한 어떤 것으로 생각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에게 온전

하게 충성하여야 한다. 교회 회원 된 자들 가운데 그 신실성이나 그 믿음의 진실성에 의심스런 점이 분명히 있는 자들이 포함되어있다 할지라도, 만일 교회가 그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교회 회원에게 지워진 의무들을 외형상 행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받아 들여야 한다. 교회의 불순함이나, 회원들의 흠결(欠缺), 교회의 행정에 대한 불만 때문에 교회를 떠날 생각을 품는 자들에게 칼빈은 여러 말로 경고한다.

기구(Institution)로서의 교회를 논할 때 칼빈은 종교적 규례들을 준행하고 전체 교회의 통일을 도모해야함을 말한다. 기독교 생활이 가견 교회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식들과 '종교적 관행'을 조심스럽게 준행 하는 것은 기독교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臨在)를 다소라도 중시한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의 규례들을 지키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교회의 통일(unity)을 도모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인간 사회의 기초인 자연의 질서에 해당하는 직분들의 상호 교통(the mutual communication of offices)은 그것의 가장 참되고 좋은 표현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체(肢體) 상호간의 섬김에서 발견된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의 동료들과의 이러한 통일을 도모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가지는 어떠한 교제보다 더 가까운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권속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의 양떼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시켜 준 자들의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섬김(care)을 베풀어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지체들의 으뜸 되는 관심의 대상이어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쓰는 모든 다른 대상들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는 교회의 지체로 간주될 가치가 없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교회의 몸과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개인적 지체도 전체 몸이 번영하지 않고서는 결코 번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했고, 그의 유일한 관심이 그 자신의 백성의 유익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논술한 칼빈의 교회관을 요약하면, 칼빈은 제도화되어 보이는 교회, 외형적 교회만을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고위 성직자 체제를 표방하는 로마 카톨릭의 유형 교회론에 반대하였다. 칼빈은 그의 부친이 출교되어 교회묘지에도 묻히지 못하고 마지막 장례기도도 받지 못한 채 죽었을 때나, 그의 형도 같은 운명의 길을 갔을 때도 오직 유일한 교회로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신앙했다. 그러던 그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진흙탕”으로 여기고 떠난 것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제 칼빈에 있어 무형 교회는 선택된 수라는 점에서 참된 교회이고, 유형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예정된 자들이 역사 속에서 현현되고 합체되게 하는 진정한 도구이다.

즉, 칼빈의 교회는 1538년 개혁파 교회이론을 정립한대로 “말씀의 순수한 설교와 잘 제정된 성례의 거행”이 있는 곳이다. 그의 교회는 “교회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서 우리 주님은 그의 은혜의 모든 보화들을 그의 교회에 위임하셨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목회적으로 모성적이고, “교회에 의해 양육 받는 것을 거절하거나 교회가 제공하는 영적 음식을 거부하는 자들은 굶어죽어 마땅하다”할 만큼 교육적인 것이다.

## 제 3 장 요한 칼빈의 목회와 교육

칼빈은 1564년 5월 27일 55세의 일기로 죽을 때까지 28년간 평신도를 가르치는 교직자(敎職者)로서 교역(敎役)에 봉사하였다. 이제 그의 목회와 교육을 살펴본다.

### 1. 가건적 교회 중심

교회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제4권은 교회론 보다는 교회 조직과 실천면을 주로 다룬다. “교회의 참된 위엄은 내적이다”라는 그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회로 초대하여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외적 방편들 혹은 도움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교회를 다룰 때 전통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강한 감정은 교회에 대한 그의 관심의 깊이를 보여 주며 또한 그의 아버지에 대한 그의 체험을 암시한다. 그는 교황 교회의 머리인 교황은 “시인들이 말하는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사탄(Satan)신과 같은 아버지”라고 썼다. 그는 교회가 영적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랑의 어머니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가시적 육체를 벗고 천사들처럼 될 때까지 이 어머니가 우리를 그의 태에 잉태하고 낳고 그의 가슴에서 우리를 먹이는 것 외에 생명으로 들어갈 다른 길이 없다”하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그는 교황을 배격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의해 양육받는 것이 더 낫다고 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일치의 유일한 유대”는 그리스도라 보고 “그를 떠나는

자는 일치를 혼란케 하고 침해하며 그밖에는 신성 모독의 음모밖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요컨대 교회의 본질적 일치는 영적(靈的)이다. 이 세상에서의 보편적 교회는 개(個) 교회들의 집합에 불과하며, 이 개 교회들은 공통적 신앙을 공유하나 그밖에는 개교회의 다양한 요구들에 따라 서로 다르다.

보편적 교회는 모든 민족들로부터 모아진 다중(多衆)이다. 그것은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고 분산되어 있으나 신적 교리의 한 진리에 동의하고 동일한 신앙의 유대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 그의 이러한 개념은 「기독교 강요」의 1539년 판에 처음으로 나타나서 1559년의 최종 판에 변하지 않고 보존된 것인데, 칼빈은 교회(the church)를 하나의 일치로 보았고, 하나의 교회(a church), 즉 항상 개체적이고 인격적인 하나의 특정한 공동체를 생각했다.

칼빈이 교회를 위한 규칙들을 제정했을 때 당시 그는 주로 제네바와 같은 한 도시에 있는 교회를 염두에 두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것은 그런 교회 안에서였다. 그는 주장하기를 교회는 실천적 공동체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신앙 안에 있는 공동체이어야 하며, 신앙은 “한 사람만을 위한 특수한 것이 아니라 전교회의 유익과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칼빈은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기 자신을 위해 능력을 소유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의 사적 일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는 것은 각자가 자기 좋을 대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그들이 진보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도 이 개체 교회들 안에서이다. 예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어떤 개인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예배의 유형을 만들어 낼 자유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주의 성찬(聖餐)에 애착을 가졌다. 그는 그것을 신앙 공동체를 결합시키는 '사랑의 유대'로 해석했다. 그에게 있어서 '성찬' 'communion'은 글자 그대로 공동체 'community'의 한 기능으로서, 그것에 의해 "우리는 우리 머리와 더불어 한 몸과 한 실체로 결합된다." "우리 모두가 공동적으로 사용하도록 성별 된 빵이 많은 알곡들이 완전히 섞여서 알곡들을 서로 구별할 수 없듯이" "우리는 불가분의 우정 속에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칼빈은 공동체 내에 권징(勸懲)을 지속시키기 위해 '제네바'(Geneva)에 장로(長老)들의 "당회"(堂會)를 창설하여 그들이 군중들이 없는 자리에서 토의함으로써 좀더 질서가 있도록 했고, 교회를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한 최종적인 방안은 파문(破門)이었으며, 파문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는 성찬(聖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었다. 파문은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살도록 경고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킬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를 "더럽고 부패한 교인들"로부터 정화시킴으로써 "혼합"을 막아 주며, 그럼으로써 실제적 질서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질서에 기여하며 하나님의 명예와 위엄을 높이는 데 공헌한다. 칼빈은 신자들은 "교회를 예전처럼 완전하게 회복할"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리고 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뒤엎어지는 것을 보고 참는 것보다 백 번 죽은 편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2. 성직자 중심

칼빈은 교회와 사회의 각종 무질서를 보고 권위주의적인 통제 방식을 좋아하

게 되었는데 이것은 성직자주의로 나타났다. 이 성직자주의는 '제네바'의 평신도(平信徒)들 속에 있는 반항 의식을 보고 심화된 것이 틀림없으나 칼빈이 구(舊)교회의 성직자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은 성직자에게 교회의 질서를 맡기셨다. 그는 교회 회중(會衆)에게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 까닭에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특권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의 몸인 그의 교회가 이런 식으로 통치되는 것이 그의 뜻이기 때문입니다”하고 말했다.

칼빈은 목사들을 “믿는 자들을 한 몸으로 결합시키는 주된 힘줄”로 보았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의 선물들을 교회에 배당하고 분배한다. …태양의 빛과 열, 음식과 음료가 현세의 생명을 양육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땅에서 교회를 보존하는 데는 사도적, 목회적인 직임이 이보다 더 필요하다.” 칼빈은 루터의 만인사제설(priesthood of all believers)을 직접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의 성직자주의를 여러 방식으로 변호했으며 사제적 권위는 “교회의 선(善)을 위한 필수적 굴레”로서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또한 사제직의 부성적(父性的) 권위에 호소했다. 그는 1539년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제네바’로 돌아오기 위한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네바 교회에 다음과 같이 엄하게 썼다. “말씀의 사역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릴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모의 관계로 대해야 하며,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여러분들 가운데서 행하는 봉사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널리 알려진 중세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성직자를 교회의 “영혼”으로(때로는 심장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평신도를 교회의 몸으로 묘사했다. 칼빈은 평신도 위에 있는 성직자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다. 성직은 하나님의 임명

에 근거한다. 목사들은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할 수 없다.” 그는 이 부름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즉, 하나는 성령에 의한 내적이고 일반적인 부름인데, 이것은 “우리가 주어진 직임을 야망이나 탐욕이나 어떤 다른 이기적 욕망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과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으로 받는다는 것”을 보증해 주며, 다른 하나는 특정한 교회에서 목회 하도록 초빙하는 외적 부름이다. 그는 목사가 자기의 부름을 확신하는 것이 본질적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확신만이 반대자들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는 것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데, 칼빈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목회 활동에 있어서 분명히 불가피한 것 같이 보였다. 그는 성직자의 권위는 그 의무들의 크기와 무게와 어려움에 비례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목사의 직임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날 백 명중에 거의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직임을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 직임을 시작한다. 그리고 후에 경험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알지 못하는 것을 열망했는지를 알게 되지만 너무 늦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훌륭한 재능과 근면함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들의 재능과 학식과 판단에 근거하여 큰일을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후에 그들은 그들의 자질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체험하지만 너무 늦다. 이는 처음부터 그들의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심각한 갈등들이 있을 것을 알지만 마치 그들이 투쟁을 위해 태어난 양 아무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며 철면을 쓴다. 또한 목사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용병들이 있다. 우리는 참으로 모든 하나님의 증들

은 세상과 상식의 관점에서는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정욕과 더불어 싸워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쾌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칼빈이 보기에는 목사로서의 소명이 주는 부담은 사실상 무한한 것이었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목회 초기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설교를 하고 나면 우리의 직무가 다 끝나서 쉬기만 하면 될 정도로 우리의 직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의 피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최대한 직접적이고 쉬임 없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 피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태만 때문일 것이기 때문이다.”하는 기록을 남겼다. 그는 성직자들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의 이미지이며 세상의 빛이며 인간들의 구원인 진리가 사라지도록 한다면” 그들에게 “무서운 형벌”이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 짐에 눌려서 좌절하게 된 목사들을 동정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 성직자들은 목회에 있어서 수많은 장애물들과 싸우기 때문에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들이며 사방으로부터 위험 속에 있어서 생존하기 위해 뱀의 지혜를 필요로 함을 알았다. 자기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목사는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며, 투쟁적이고 침울하고 평화의 교란자로 여겨질”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목사들은 특유하게 “쉽게 중상과 모욕을 받으며” “악한 사람들의 비방을 들을 기회가 많으며,” 그리고 “그들에 대한 비난이 있자 그것이 이미 입증된 것인 양 확실하고 확고하게 믿어 버린다”하고 불평했다.

칼빈은 교육 목회에 있어 위험한 것으로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죄 지은 사람



들을 책망하는 임무였다. 목사들은 “훈계하고 권면하고 비판”해야 하며, 평신도들은 “하나님 자신에게 하듯이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칼빈은 목사들에게 그렇게 많은 적들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악들을 책망하고 모든 악한 욕망들을 반대하고 타락한 것 같은 사람들을 엄격히 억제하는 의무 때문으로 생각하였다. 사람들을 책망하는 임무는 특히 권세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위험했다. 왜냐하면 가장 권세 있는 평신도라 할지라도 목사들의 도덕적 감독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칼빈은 목사는 “왕들과 왕후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책망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민중들이나 낮은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을 복종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성직자가 명령할 권위를 부여받았다면 평신도는 순종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이는 그들이 양 떼가 아니라 “곰 떼”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칼빈은 로마 교회 사제들의 독재와는 전혀 다르며, 매우 친절하고 좋은 의도를 가진 성직자들의 통솔에 대해 평신도들이 저항하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 그는 “교황의 학정을 조용히 참고” 그리고 “수도사들의 잔인한 모독을 조용히 삼키던” 자들이 지금에 와서 “목사들의 부성(父性)적이고 유익한 책망들에 대해 화를 벌컥 내는 것”을 보고 견디기 어렵게 느꼈다. 그는 “교회의 직임자들이 세운 것을 무차별하게 배격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황폐의 정도가 흉하고 끔찍할 것이다” 하고 외쳤다.

### 3. 하나님 주권 중심

칼빈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중심이다. 이 하나님 중심 사상이 칼빈의 교육목

회의 바탕이 되었다.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경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 생애를 이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언제나 자기는 미천하고 아무 것도 아닌 무가치한 자로 자처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자서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회심의 날짜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시편(詩篇) 주석의 서문(序文)에 나타난 사실을 보고 그의 회심을 추측할 뿐이다. 죽을 때에도 자신의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할 만큼 칼빈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였다. 칼빈의 하나님 중심사상을 넷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말씀의 전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성례(聖禮)가 바로 시행되는 곳이라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칼빈은 주장하였다.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식별하는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칼빈은 여러 번 강조하였다. 다소 도덕적인 결함이나 병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두 사역이 존재하기만 하면, 거기에 교회가 있고, 교회라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다. 주요 교리(敎理)나 신조(信條)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합법적인 제도를 폐지하거나 허물지 않는 한, 사소한 잘못들은 마땅히 용서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핵심 속에 거짓이 침투하거나, 교리의 뿌리가 붕괴된다면 목이나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교회는 즉시 파멸하게 될 것이다. 만일 선지자(先知者)와 사도(使徒)의 교훈이 교회의 기초를 이룬다면, 그 교훈이 제거되었을 때, 그 건물은 어떻게 존립할 수가 있겠는가? 교회를 지탱하는 요강이 무너지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참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 3:15)라고 한다면, 기만과 허위

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칼빈에 의하면, 교회의 사명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해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시키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며,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보다 나은 조력자이다. 현상계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명백하게 계시하고, 한편 인간을 창조주(創造主) 하나님 앞으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조력자를 주셨는데, 그것은 성경이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얻게 된다. 거짓 신과 참 신이 어떻게 다르며, 참 신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알게 된다. 성경에서 알게 되는 참 신은 온 우주의 창조주요 구속주(救贖主)시라는 것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신만이 경외함을 받아야 하며 예배의 대상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성례의 강조이다. 하나님은 사람과 만나실 때 직접 만나지 아니하시고, 전달이나 가시적(可視的) 상징을 수단으로 하여 만나신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본질적으로 성례전적 교회로 보았다. 그는 질서가 잡히고 잘 다스려지고 있는 교회라면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식이 자주 거행되고 모든 신자들이 이 예식에 마땅히 참석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칼빈은 로마 교회의 7성례(건신례, 고해례, 안수례, 결혼례, 증유례, 세례, 성찬)를 비성경적인 것으로 보고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라고 주장하였다. 이 둘만이 성경에서 입증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 준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성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말씀 없이는 성례의 요소들은 단순한 물이요, 떡과 포도주에 지나지 않는다. 칼빈은 처음부터 말씀과 성례를 평행적으로 다루었다. 물론 이 둘을 동일한 평면에 둔 것은 아니었다. 성례는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보충적인 것이지만, 말씀은 성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완성적인 것이다. 칼빈은 성례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신앙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비의 약속을 우리 양심에 인(印)쳐 주시는 유형적 표호(票號)이다. 그리고 우리편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을 증명하는 의식이다. 우리는 이 정의에서, 성례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약속의 확증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성례는 그 약속에 아무 것도 첨가하지 못하고, 다만 그것을 믿게 하는 수단이 될 뿐이다.

셋째는 권징과 훈련이다. 권징(勸懲)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유지하며 성례를 거룩하게 지키는데 매우 필요하다.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교회는 성화(聖化)의 생활을 해 나가도록 신자들을 지도하며 도와야 할 의무를 갖는다. 만일 교회의 설교가 헛되지 않고, 성례가 신자들의 신앙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모든 오류에서 피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아반성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권징이 시행되어야 할 경우도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칼빈이 교회의 권징을 아주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참된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의 개혁자 '부처'(Martin Bucer)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이 점에서는 그와 견해를 달리하였다. 루터가 교회의 두 표지 즉 복음전파와 성례의 시행을 주장한데 대해서 '부처'는 여기에 권징을 하나 더 가했던 것이다. 칼빈에 있어서 권징은 물론 중요했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방어의 표준이며, 성화의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칼빈에 의하면, 그것은 교회의 조직에 속한 것이지, 교회의 정의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 교회는 비록 그것이 지상에 존재하는 한, 항상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화(聖化)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확실히 그



리스도의 몸이지만, 그 회원들이 현재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교리의 혼란과 회원들의 건덕(健德)상의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의 순결과 성도들의 성화의 생활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 교회에 혼란이 있고, 회원들에게 추한 행동이 있을 때, 이것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엄을 위해서 권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권징은 특히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의미하는 성찬(聖餐)에서 더욱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네 책로 칼빈은 교육을 강조했다. 칼빈은 예배를 통해서 신자들을 바로 교육하였다. 그는 예배에서 설교(說教)의 위치를 높였으며, 전통적인 예배형식을 버리고 대중화하였다. 그리고 성례식에서 비복음적(非福音的) 요소들을 제거하고 간소화시켰다. 교회의 제1차적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보고 그는 설교를 예배의 중심에 두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과 장년등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요리문답(要理問答)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 칼빈의 첫 '제네바'시대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은 일반시민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의 종교교육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제네바 요리문답서'(Geneva Catechism)를 만들었다. 이 문답서는 '기독교 강요'의 개요(概要)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개혁(改革)과 교회의 교리(教理) 표준서가 되었다. 1년 52주에 할당하여 매 주일에 한 문답(問答)씩 가르치도록 되어있는 이 책은 교육에 대한 칼빈의 큰 공헌 가운데 하나였다. 칼빈은 역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려는 인간의 기본적 목적을 품고, 학교 교육의 통하여 개혁신앙과 신학을 전수하려고 하였다. 칼빈의 교육활동 가운데 팔목할 만한 것은 학교 설립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루터로부터 시작된 대중 교육의 새로운 형태를 발전시킨 것

으로 교육사적으로 볼 때에도 큰 의의가 있다. 칼빈은 1541년 '스트라스부르그' 생활을 끝마치고 '제네바'로 돌아왔을 때, 교육에 대한 자기의 꿈을 시의회에 보여 주었고, 마침내 그의 끈질긴 노력으로 1559년 6월에 '제네바 대학'이 설립하게 되었다. 칼빈은 제네바 대학을 교회의 감독 아래 두고, 각 교사들은 엄격한 교회의 훈련을 받게 하였으며, 교회에 의해 임명받도록 하였다. 제네바 대학은 당시 전 서구의 젊은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유럽 각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운집하였다. 그래서 1570년경에는 1,500명 정도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었다. 이 대학은 대학과 함께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있는 현대 교육의 시초가 되었다. 그리고 교양과목과 그 밖의 학과들을 통한 다양한 학문연구와 신학연구를 연결시켰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이상으로 칼빈의 목회와 교육을 살펴볼 때 칼빈은 교회를 지도함에 있어 성직자의 권위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지도한다는 것은 교육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사회가 자체의 존재조건을 재창조하기 위한 수단이다. 교육은 아직 미숙한 인간(생물적 존재)을 새로운 인간(사회적 존재)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교회사회의 사회적 사실(social facts)을 재창조하는데는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교회 안의 사회적 존재로 교육되고 학습되어야 한다. 학습의 개념을 '인간행동의 변화'라고 볼 때 계시(啓示)의 심오(深奧)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사회에서의 평신도는 더욱 더 교육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 필요에는 교사(教師)로서의 성직자(聖職者)와 학습자(學習者)로서의 평신도(平信徒)가 제 역할을 해주어야만 한다. 주목 할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와 학습자로서의 평신도의 관계는 엄밀히 구별되어야 하면서도,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제 4 장 평신도와 목회자

본 장에서는 평신도와 목회자의 고유한 자리를 살피면서 그 각각의 존재 의의를 알아본 다음 상호 발전적이고 보완적인 차원에서 평신도 목회를 소개한다.

### 1. 평신도

‘평신도’(平信徒)란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의미한다. 참고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다.

#### 1) 평신도의 개념 이해

평신도의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다음 세 가지 입장에서 논한다.

##### (1) 일반적 이해

‘평신도’란 성직자(聖職者)와 구별된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즉 일정한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 무급(無給)으로 봉사하는 모든 교인(敎人)을 의미하고, 직장을 가지고 이 사회와 세계 속에 침투하여 있는 성도들이다. 대체로 성직자나 교직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안에는 두 계급이 있었다. 한 종류는 신성한 일과 목

상과 기도에 몰두함으로써 이 세상적인 직업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이 세상 재물을 소유하고 결혼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된 그리스도 인이다. 당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수가 많아짐에 따라 교회의 직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통에 의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직분과 가르침을 받는 직분이었다. 교회가 이렇게 구별되는데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사회와 헬라 사회에 그와 같은 두 가지 계급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 (2) 성경적 이해

일반적으로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교육자를 제외한 비전문적 일반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평신도의 본래 개념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평신도는 영어로 Laity, Laymen 이다. 이 단어들은 그리스어의 ‘라이코스’(λαϊκος)에서 유래되었고 어원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chosen people)을 의미하는 ‘라오스’<sup>18)</sup> (λαος)에서 온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라이코스’<sup>19)</sup>들이다. 그러므로 평신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백성 모두를 지칭했던 이 말은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행 4:14)을 뜻하는 말로 그 의미가 바뀌어지면서 점점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는 이질적(異質的) 계급적(階級的) 성격으로 바뀌어져 왔으며, 여기서부터 전통 교회의 과오(過誤)가 시작되었다.

18) 헬라어 ‘라오스’는 ‘사람들’로 번역되며 크게 다섯 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째는 ‘에스노스’로서 동일한 유산과 관습 하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둘째는 ‘데모스’로서 왕과 귀족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백성을 말하고, 셋째는 ‘오클로스’로서 군중이나 무리들을 가리키며, 넷째는 ‘폴리스’로서 정치적인 집단과 도시시민을 가리키고, 마지막 다섯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19) 신약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λαος’와 의미는 같다. ‘λαος’는 신약성경에 140번이나 언급되었고 70인역(Septuagint)에는 약 2000번이나 기록되어있다.

초대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이미 성직자 (clergy)와 평신도(laity)로 구분되는 두 계급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직자와 평신도가 이원론적(二元論的)으로 이해 되기 시작한 것은 당시 주국(柱國)이었던 로마제국의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 이후 곧 3세기 전후라고 본다. 통치자의 계급으로 명명된 ‘크레로스’(κλήρος)의 위치가 교회 구조에 들어오면서 그것은 신의 은총을 관리하고 시행하는 자로서 나타났으며, 피지배자 계급으로 알려졌던 ‘라오스’(λαός)는 신의 은총(恩寵)을 받은 자(recipients)로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크레로스’와 ‘라오스’ 사이에는 지배자와 비지배자의 이질적(異質的)인 간격이 생겼으며, 그것이 교회 구조에 적용되었을 때 성직자는 ‘크레로스’로, 평신도는 ‘라오스’로 이질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신도(λαός)와 대칭 되는 성직자(κλήρος)는 원래 제비뽑기의 ‘심지’를 뜻했다. 구약시나 신약시대에 큰 일, 즉 토지분배나 인력동원(삼상 10:20), 여호수아 14:2, 18:6), 그리고 한 자리가 비어 있는 12사도를 총원(행 1: 26)할 때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크레로스’(κλήρος)는 제비뽑기와 의미가 연결되는 ‘뭉’을 의미하기도 한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원 계급이 교회론적으로 합리화된 것은 중세 로마 교회였다. 성직자는 초자연(Supernatural)법에 따라 성역(聖域)에 속한 사람으로 성례전(聖禮典)을 집행하고 가르치는 자이고, 반면 평신도는 자연법에 따라 속역(俗域)에 속한 사람들로서, 그 운명과 존재에 있어서 성직자와는 다른 사람들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론적(二元論的) 구분은 비(非)성경적이며,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이러한 구분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하나님의 말씀(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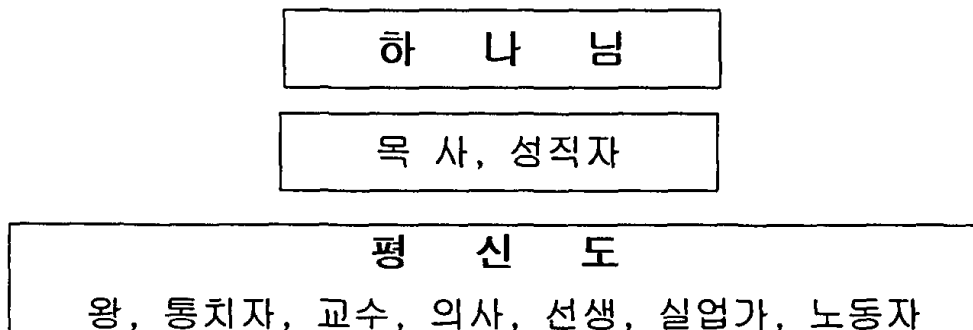
Word of God)의 권위는 루터로 하여금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도록 만들었는데,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은 성직자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아울러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와 진다”(justification by faith alone)는 신앙 이해를 성직자와 평신도에게 모두 해당되는 성경의 기본적인 교훈으로 보았던 것이다. 루터는 계급적인 권위가 구체화된 교회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성직자요 교황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루터의 주장은 만인사제론(萬人司祭論)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후에 은총만으로- (Sola Gratia) 또는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라고 선언 되게 되었다.

말씀 앞에서 성직자나 평신도가 모두 평등한 것이다. 다만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완전한 부르심을 수행하는 필요할 뿐이며, 성직자와 평신도는 제정된 고유의 직능을 각각 수행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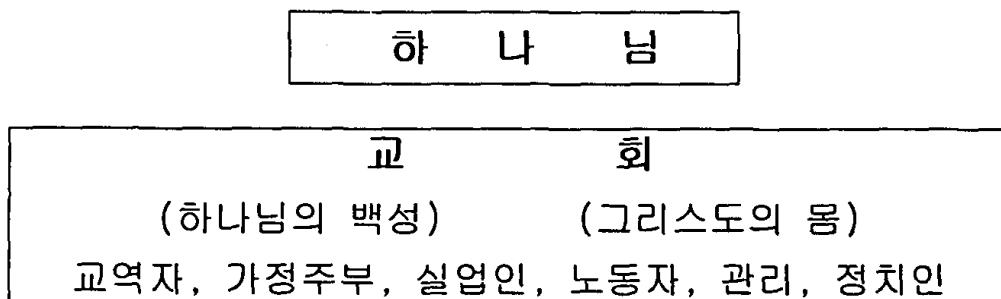
### (3) 신학적 이해

신학자 호켄다이크(J.C. Hoekendijk)교수는 “나는 확실히 우리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질서라고 간주되어 온 일반적인 질서를 아주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고 싶다. 말하자면 평신도는 성직자의 팔의 연장도 아니요, 그의 조수도 아니다. 교직자의 축소판도 아니다. 오히려 성직자야말로 평신도를 섬기는 종이다. 성직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지도해야한다. 성직자 자신은 세계 무대에서 나서지 않는 대신 그 자리에 평신도가 서야 한다. 성직자는 거기에 나설 수 없다. 직업적으로 그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는 어느 정도 감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격려자로 활약 할 수는 있다. ...사도직과 평신도는 본질적으로 분리 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결합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는

바 평신도 사역은 교회 성장과 교회의 개혁의 중점부분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얼어붙은 백성」의 저자 Mark Gibbs & Ralph Morton은 평신도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위의 도표에 따르면, 종래 입장은 일부 교회 전통을 제외하고 평신도란 성직계급과 완전히 구분되는 세속적인 교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목사, 감독, 성직자는 상층 계급에 속하고 그 밖의 평신도는 하층계급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오랜 전통과 신학적인 재발견을 통하여 평신도는 새롭게 이해 되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이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도표에 따르면 교역자와 평신도는 엄격하게 상하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것은 평신도는 각 교회의 교역자와 같이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의 복구를 의미한다. 평신도 신학은 평신도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 신학이 아니며, 또한 반(反)성직자 운동도 아니다. 목회자와의 협력 관

계를 새로이 하는 교회적 운동이다. 이러한 평신도 신학 운동은 교회의 동결된 자산으로의 평신도를 고무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무대인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자하는데 그 참뜻이 있다.

앞서 초대(初代)교회부터 3세기경까지는 ‘크레로스’와 ‘라오스’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동참하는 ‘모든 백성’을 지칭하였다고 밝힌 대로 ‘크레로스’는 ‘라오스’ 전체 안에서 ‘라오스’를 위해 임무와 기능을 가진, 그 몫이 독자적인 활동과 임무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라서 양자(兩者)를 소박하게 비교할 때 존재이유와 목적에 있어서는 평신도의 존엄 쪽이 성직계(聖職系)의 존엄보다 더 넓다. 그러나 존재순서로 볼 때는 성직계 쪽이 선행(先行)한다. 선행함으로 더 능동적이다. 그래서 ‘크레로스’는 전체의 일치와 가르침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며, 그리스도를 좀 더 잘 보고 사랑하며 따르게 하기 위해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그 손가락은 결코 우상화(偶像化)되거나 신격화(神格化)되어서는 안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지주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라오스’와 ‘크레로스’는 각각 다르게 받은 성령의 카리스마에 따라 봉사하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에,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 2) 평신도 사역의 실제

평신도 사역의 실재를 기술하는 목적은 ‘객체’ (object)로서의 평신도가 아니라 ‘주체자’ (subjects) 또는 ‘행위자’ (agents)로서 사역을 감당한 많은 역사적 실재를 상기해 봄으로 평신도가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게되는 계기를 삼고자 함과 동시에 교회를 개혁하는 잠재



력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福音)의 말씀을 전하며 (행 8:4), 또한 이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흠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道, 福音)를 전하였다.(행 11:19) 여기서 흠어진 사람들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평신도들이다. 그들은 가정 생활과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일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 중에 뽑혀 사도들의 일을 대신 맡은 일곱 사람<sup>20)</sup>도 있는가 하면, 그 일곱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 하다가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 장렬한 순교자(殉敎者)가 되었고, ‘빌립’의 열성 있는 전도는 ‘이디오피아’의 내시로 하여금 아프리카 대륙으로 복음을 퍼뜨리게 하였다.

그들은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한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순수한 평신도들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직자도 따로 없이 사역 역시 자발적인 것이었고 어떤 제도나 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초대교회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제사장(祭司長) 계급의 출신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아 기독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이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중세교회시대로서 4세기 초 콘스탄틴(Constantin)대제가 기독교를 국교(國敎)로 받아들인 때부터 교회는 교직자 중심의 종교적 제도가 되었다. 콘스탄틴 이후 교회는 로마의 교황권을 확립하도록 촉진시켰고, 교회적-계급적 사고양식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일찍부터 교직제도에 중점을 둔 강력한

---

20) 칼빈은 이 일곱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나, T. M. Lindsay는 그의 저서 “*The Church and the Ministry in the Early Centuries*” p.115~118에서 ‘장로’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권위의 확립을 지향하여 나아갔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중세기 전부터 성직자들의 교권 남용으로 매우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이를 개탄하고 구원하려는 움직임이 주로 평신도들에 의해 나타났다. 그들의 움직임은 수도원(修道院)제도를 탄생시켰다. 이 당시 수도사들의 겸허하고 청빈한 생활과 높은 영적 신앙은 세상에 많은 모범을 보였다. 수도사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 특수한 신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생활의 형태를 갖는데 있었다. 프랑스의 방랑(wandering)설교자들과 결식수도회(乞食修道會, Mendicant Orders), 그리고 프란시스 형제단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은 모두 평신도들이었다. 이 평신도들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힘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

셋째로 종교개혁<sup>21)</sup>과 그 이후시대로서, 루터(Martin Luther)의 종교 개혁은 일반 평신도에 의한 것이었다. 즉, 세속적 상류 계급에 속하는 소박한 남녀 평신도들의 운동이었다.

루터가 개혁의 가치를 둔 요소 중의 하나가 “만인사제직”(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이었다는 것이 이를 잘 증거 해준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모라비아 형제단’(Moravian Brethren)의 창시자 ‘진첸돌프’는 경건한 신앙 생활과 세계 선교를 목적으로 반(反)수도원(修道院)적 성격을 조직하여 선교에 힘썼으며,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John Wesley)에게 강한 영향을 끼쳐 마침내 세계 선교 운동의 태동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웨슬레’의 부흥 운동은 평신도 운동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흥미 있는 사실은 많은 유능한 평신도들이 출판물로 종교개혁에 동참하였다는 사실이다. 대체로 프랑스, 영국, 화란, 독일, 스위스 등에서 그러했다.

---

21) 사실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이었다.

그 중에는 칼빈도 포함된다. ‘칼빈’도 평신도<sup>22)</sup>로서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를 저술하였는데 이는 직업적인 신학자나 교직자의 작품이 아니었다. 그는 평신도로서 제네바를 무대로 하여 스위스의 교회를 철저히 개혁하는 일에 앞장섰고 후에 필요에 의해 교직자<sup>23)</sup>가 되었다.

17세기는 탁월한 평신도 신학자들이 큰 영향을 준 시대였다. 번연, 밀튼, 유교, 그로디우스, 라이프니츠 같은 이들이 모두 평신도들이었다. 그리고 평신도인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ikes)는 1780년 거리의 어린이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글로우체스터(Gloucester)의 세인트 카사린즈 거리(St. Catharines Street)에 주일학교(Sunday School)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특히, 미국 부흥의 원동력이 된 대각성(Great Awakening) 운동과 무디(D.L. Moody)의 전도운동, 구라파의 학생자원 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과 19세기의 Y.M.C.A와 Y.W.C.A운동은 주로 평신도들의 운동이었으며 20세기에 이르러 평신도들이 수행한 일들은 수 없이 더 많다.

마지막으로 초기 한국교회에 있어서의 평신도 사역은 세계역사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큰 행적과 의미가 있는바 천주교와 개신교를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한국천주교의 경우 선조(宣祖)와 광해군(光海君)때 중국 연경(燕京)

---

22) H. Kraemer는 칼빈이 그의 편지(Corpus Ref.IV.443)에서 “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바와 같이 보통 평신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하며, 칼빈은 M.A(문학석사)이며 Lic. of Law(법학사)이다. 그는 제네바에서 설교자로 취임할 때도 안수 받지 아니한 평신도 신학자였다고 말한다.

23) 칼빈을 목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이상규 교수는 “교회개혁사”(서울:성광문화사,1998).P.153 에서 칼빈은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은 없지만 당시 평신도와는 서로 다른 분명하고도 엄숙한 구별이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정성구 교수는 “칼빈주의 사상대계”(서울:총신대학출판부,1995).p.77 에서 칼빈을 목사라 하였으며, 신복윤 교수 역시 “칼빈의 신학사상”(서울:성광문화사,1993).p.16 에서 목사라 호칭했다.

에 간 사신을 통하여 학문으로 받아들여 연구하기 시작한 이래 허균과 소현세자가 신봉하였고 영조(英祖)말기에 이르러 정계에서 물러난 이벽, 권일신, 이가환, 정약종의 3형제 등 남인들이 학문에서 신앙으로 자리로 옮겨 앉았다. 그러나 한국전통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천주교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경에 있는 천주당에 사람을 보내기로 하였는데 이 때가 정조(正祖) 7년인 1783년이고 이승훈(李承薰)이 아버지 이동욱을 따라 동행하였다. 그곳에서 이승훈은 천문학과 수학과 과학의 견문을 넓이며, 예수회 선교사 ‘그라몽’과 필담(筆談)으로 대화하던 중 기독교의 신묘한 이치와 도덕적 교훈에 끌려 마침내 신앙을 고백하고 北京 南堂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고,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이 때가 1784년 2월이었고 그 다음해 성경과 성상(聖像)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이 일은 외국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에 미교화국(未教化國)의 한 청년이 밖에 나가 기독교를 스스로 믿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조선 토착인이 교리서와 십자가상 등을 가지고 들어와, 서울 근교에서 전교(傳教)한지 5년여만에 신자 수 4000을 헤아리는 기적을 이루었다. 특히 ‘정하상’은 한국교구의 독립을 위해 중국을 여러 차례 왕래하였고, ‘김대건’을 ‘마카오’로 비밀리에 유학 보내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한국인 최초로 천 백자에 이르는 호교론적 변증서인 ‘上宰相書’를 저술하여 한국신학의 토착화를 위한 선구자가 되었다. 교권주의와 성직계가 엄격한 천주교에서 이렇게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교회의 기틀을 놓은 사실은 세계선교 사상 두 번 다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며, 당시 국금(國禁)상태에 있던 천주교를 전하면서 110년간 가까이 선교사나 사제 한 사람도 주재하지 못한 가운데서 평신도들이 연이은 교난(教難) (선해교난 1791, 신유교난 1801, 기해대교난 1839, 병인교난 1866) 속에서, 마치 초대교회의 로마 순교(殉教)를 방불케 하는 장엄한

순교를 담당하였다.

다음으로, 개신교의 경우이다. 한국 개신교(改新敎)도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외국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들여놓기 이전에, 본토인이 일본과 만주에 나아가 스스로 기독교를 믿어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하여 가지고 들어와 전도하여 개신교의 기틀을 놓았다. 임오군란(壬午軍亂)의 수습을 위해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중 이수정(李樹廷)이 일본에서 당시 일본 농학계의 거두 쓰다(津田仙) 목사를 만나 기독교로 개종하여, 한문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글을 발표하고 세례(洗禮)를 받았다. 그는 이어서 복음서 번역에 착수하여 1884년에 '요꼬하마'의 「대영 및 외국 성서공회」에서 한글판 '쪽 복음'을 발간하였다. 그후 한국에 들어오는 서양 선교사들은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으로 한국어를 공부하였다.

한편 만주의 고려 문에서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소속의 메킨타이어(John McIntyre)와 로스(John Ross)와 함께 서상륜과 이응찬 등은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다. 서상륜은 1882년에 '누가복음서'를 번역하고 곧 세례를 받고, 보부상을 그만 두고 권서인(勸書人, Colporteur)으로 나서 조선 전역을 돌며 복음을 전했다. 그는 자기의 고향 황해도 송천(松川)에 가서 58세대 중에서 50세대를 입교시켜 한국교회의 '요람지'(搖籃地)를 만들어 놓았다.

이 모든 것은 모두가 평신도가 스스로 한 일이었다.

그 뿐 아니라 1896년 서재필 박사를 중심으로 '독립협회'를 만들어 근대적 민족주의의 방향을 지향하였으며, 1903년에는 이 상재 선생이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안창호 선생은 '무실역행'(務實力行)을 모토로 민족 개조론에 헌신하였으며 1927년에는 전국 수 백 개소에 덴마크식 협동조합을 조직하였다. 1928년에는 절제회가 조직되어 미성년자의 금주법 실시운동을 전개하였고,

1932년에는 YMCA가 중심이 되어 공창폐지 운동을 벌이는 등 한국 개신교회는 초창기부터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시간의 10분의 1을 바치는 '날(日)연보'와 절용절식(節用節食)한 '성미'를 바쳐 교회 육성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밖에도 학교설립과 병원, 언론, 양로원, 고아원 그리고 우리 나라 최초의 보건소인 중앙 보건소를 서울에 개소하는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세계 교회사에서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활동을 한 것이 한국 교회의 평신도들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결론은, 많은 사도들과 예언자, 교사, 전도자들은 평신도였으며(엡4:11 참조) 바울의 동역자의 대부분 역시도 그러했다.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이러한 평신도들이었다.(행18:26, 21:9, 롬16장 참조) 결국 신약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로 성도들의 기능과 소명(vocation)에 관한 것이요, 그들의 지위문제가 아니라 는 사실은 교회의 생활과 증거에 있어서 평신도가 차지하고 있는 현저한 역할을 의미하고 있다.

## 2. 목회자

본 항에서는 소명 받은 교역자(성직자)로서의 목회자를 먼저 논하고 이어 평신도 목회를 논한다.

### 1) 소명 받은 교역자

역사적으로 교회가 목회자(교역자)와 평신도를 각각 별개의 존재로 인정하는 이원론(二元論)에 빠지지 않으면서 교직의 중요성을 유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역자와 평신도, 이 둘은 가장 가까우면서 동시에 가장 상처를 주기 쉬운 관계였던 것이다. 그 관계가 악화되면 교권주의와 반 교권주의의 투쟁으로 발전하기 일쑤였다. 그런데 냉정하게 판단하면 반 교권주의를 불러들인 장본인은 바로 교권주의였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 편을 절대시할 수는 없다. 반 교권주의라는 원고가 교권주의라는 피고 앞에서는 정당하게 보일 지 모르나 그 주장이 지나쳐서 반 교직운동이 되어 버리면 최고의 법정인 성경 앞에서 승소(勝訴) 할 수 없다. 교직은 엄연히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성직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면서 교직을 교회에서 교인들을 하나로 규합시키는 중요한 열쇠로,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로, 주님 자신이 현림(現臨)하는 제도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반(反)교직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이 질서와 이런 종류의 통치를 폐지하려고 애쓰거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는 누구나 교회의 분열 내지는 파멸과 멸망을 바라는 자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세의 삶을 지탱하고 더욱 더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과 열이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하듯이 지상의 교회를 보존키 위해서 사도직과 목사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고 그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대중설교의 직을 맡든지 성례(聖禮)를 집행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질서의 문제이지 교리의 문제가 아니다. 질서(秩序)도 권위가 있지만 교리(教理)만큼의 권위는 가질 수 없다. 신학교육을 받고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는 것이 다 질서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런 질서를 부정하려고 하는 무질서가 일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로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오해를 자아내게 하는 불건전한 모임이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과거 일부 복음주의 선교 단체에 속한 젊은이들까지 반 교직의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에게 반(反)교직(敎職)은 제도상의 교회를 부정하는 반(反)교회의 성격마저 나타내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평신도 문제를 강조하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오해를 왕왕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반 교직을 지지하는 자들이 빠진 함정과 꼭 같은 위험이 교역자(敎役者)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교직을 절대화 시켜서 그것을 도전하는 행위는 무엇이든지 정죄(定罪)해 버릴 위험이 항상 남아 있는 것이다. 교직을 도전하는 것이나 교직을 절대화하는 것이나 잘못 된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모든 신자가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만 교직의 존재와 그 타당성을 부정 할 수는 없다. 엄격하게 말해서 교역자에게는 평신도에게 없는 사역상의 권위가 있다. 목사의 일에는 평신도와는 어떤 구별이 분명히 존재한다.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다른 어떤 차이, 특히 신분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어떤 봉사가 하나의 직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목사의 직분은 다른 것과 확실히 구별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목사는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다.

## 2) 평신도 목회

평신도 목회는 그 단어 자체가 복합개념이므로 먼저 목회라는 단순 개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평신도 목회를 알아본다.



## (1) 목회

‘목회’는 ministry, ministration, ‘목사’는 minister ‘목회하다’는 to minister 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바, 미국에서는 목회자를 ‘Pastor’라고 부르며 평신도 사역자를 ‘Minister’라고 구별하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목회’를 의미하는 가장 고전적인 단어는 διακονος와 λειτουπνος와 λατρεία 등의 헬라어가 종교적으로 사용되었고 이것은 교회의 직분자 또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하였다. 이 3 그룹의 어휘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διακονος ( Deacon, Deaconess )

διακονος는 매우 평이한 말이었으며 아주 서민적으로 사용되었다. 식탁에서 봉사하거나 굶은 일을 할 때 자주 사용되었고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말이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방인 종들에게 διακονοι를 사용했고 다른 사도들도 이를 일반적인 봉사 때에 사용하였다. 그리고는 유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전해주러 갈 때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세 단어는 교회에서 목회직에 사용되었다기보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선교(宣敎)활동에서 사용된 때가 많았다.

### ② λατρεία 또는 λατρευειν ( service 또는 ministration )

θεραπεια나 θεραπυειν은 신성한 예배나 의식에서는 한번도 쓰여진 적이 없다. 신약 기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식에서는 λατρεία 또는 λατρευειν나 λειτουπνειν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때로는 희생하기까지 하는 데 사용하였다. 물론 λατρευειν와 λειτουπνειν은 이방인 예배에서도 사용하였다. 그러나 유대인 예배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하나님나라의 예배에도 언급되었다.

③  $\nu\epsilon\iota\tau\omicron\upsilon\pi\nu\omicron\varsigma$   $\nu\epsilon\iota\tau\omicron\upsilon\rho\nu\iota\alpha$   $\nu\epsilon\iota\tau\omicron\upsilon\rho\nu\epsilon\iota\nu$  ( public minister )

$\nu\epsilon\iota\tau\omicron\upsilon\pi\nu\omicron\varsigma$ 의 이 세 단어는 어느 단어보다도 공공연하게 목사와 목회에 사용되었다. 원래는 헬라의 아테네나 도시 국가에서 공공연하게 봉사하는 시정(市政)의 봉사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종교의식에 관여하는 자에게도 사용되었다. 물론 이 말은 헬라뿐 아니라 애굽에서도 같이 사용된 말이었다.

이 말은 LXX 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의식과 교회 직분자들에게 적용되었다. 성경의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들 그리고 히브리서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믿음에서 솟아나는 선행을 말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증거 하는 자들을 말하였다. 이는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유기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상의 헬라어 원어들은 결국 ‘봉사한다’는 의미로 집약되고 이 말들은 교회가 점차 가시적으로 운영되면서부터 교회 내외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직분자’라는 의미로 적용되었다.<sup>24)</sup>

그런데 ‘목회’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고찰함으로써 그 의미가 드러나기에는 너무나도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목회’라는 명칭은 그리스도인 사역에 대한 모든 성경적인 묘사 가운데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근본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독특한 기독교적 용어이다. 이 명칭은 하나님 안에서 그 시작과 끝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의 풍부한 비유들이 그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다. 아담스(Jay E. Adams)는 이 비유의 의미를 시편 23편을 통해 밝힌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

---

24) Thomas C. Cambell and Gary B. Reiersen. *The Gift of Administration*.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81), p.106-108.

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이 위대한 선언 가운데는 ‘목회사역’이 의미하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sup>25)</sup>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이 비유는 예수님에게 이어진다.<sup>26)</sup> 예수님의 뒤를 이은 사도들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고 자라가라는 것이었고 그들의 남은 사역은 이 구원과 성장을 위해 양떼의 상태를 살피며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도들의 목회사역은 후에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계승되어진다.

이 비유에서 사용되는 ‘βόσκω’ 라는 동사는 그 묘사된 임무로 볼 때 ‘먹이다’라는 하나의 제한된 개념보다는 오히려 회중을 ‘완전히 돌본다’(먹이는 것을 포함)는 의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을 집단으로나 개개의 양으로 돌본다는 것은 가르침과 구별된<sup>27)</sup> 목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다.

## (2) 평신도 목회

평신도 목회는 다원화(多元化) 개념이다. ‘다원화 목회’는 ‘일원화 목회’라는 개념과 대조되는 관계를 갖는데 이러한 관계는 본래적으로 파생되었다기보다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어 온 목회 형태이다.

‘목회의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목회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

---

25) Charles Jefferson은 목자의 일을 분석하여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경비원’(watchman) ‘경호인’(guard), ‘인도자’(guide), ‘의사’(physician), ‘구조자’(savior), ‘양을 먹이는 사람’,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밝힌다. Charles Jefferson, “The Minister as Shepherd” (Hong Kong: Living Booksfor All, 1983), p.39~66.

26) 요 10:11. 아담스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결코 감독이나 장로 혹은 설교자라고 부르지 않고 목자라고 불렀다. Lea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4), p. 509.

27)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은 분명히 양을 먹이고 훈련시키고 인도하는 한 부분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 일들은 목회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 활동들이 분리되지 않는지만 구별된다는 사실이다.

여 '예수'에게로 이어졌으며 성령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로 계승되었다. 이 교회 안에서의 구별은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내에서의 기능에 관계한다.

존 스토틀(John R. W. Stott)는 이러한 사실이 바울의 서신 속에 적어도 세 번이나 언급되어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서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인체를 비유로 들고 있는 그의 지적에 따르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였고 또 모든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것인 동시에 전체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다. 문제는 이 모든 지체의 기능이 잘 발휘되어 교회 공동체의 하는 일을 조화롭고 균형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원화 교역의 형태는 점점 약해지고 4, 5세기에 이르러서는 일원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변화 과정에 세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경향이 있다.

첫째로 교역의 1인 중심화이다. 사도들의 활동이 없어지고 개(個) 교회 중심의 교역이 위주가 되면서 감독제(監督制)가 점차 발달하게 되었다. 키프리안(Cyprian)에 와서 이 감독제는 교리화 되어 교회 교역의 일원화 경향에 결정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두 번째 역사적인 경향은 교역이 사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교역자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증보자(仲保者)의 역할을 하는 사제가 되어 가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경향에 영향을 준 요소는 성찬식을 희생제로 이해함을 위시해서 성례전이 제도화되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성별(聖別)된 사제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교역(敎役)의 성직화이다. 교역이 차츰 성직으로 생각되어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에 분명한 선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교역은 교인 전체의 임무가 아니고 성직자들만의 일로 되어버렸다. 4세기 이후의 성직자는 사회적인 특권까지도 부여받게 되었으며 교역은 소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직업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세 가지 경향은 서로 연관되면서 지금까지 다양한 교역의 형태들을 이루었다.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인 교역을 회복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루터나 칼빈 모두가 교역은 전체 교회에 주어진 과제로 이해했고 특히 루터는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그들도 일원화 교역의 형태를 그대로 전수한 셈이 되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목회의 정의를 내리려고 할 때 일원화 목회에 편향된 정의를 내리기 쉽다.

그러나 ‘존 스토티’는 목회의 교회의 일체성과 다양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원화 목회와 다원화 목회의 관계에서 균형 잡힌 정의를 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우리가 속한 몸이 하나이며, 우리가 소유하는 성령도 하나이며, 우리는 공동의 지위와 특권을 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의 서로 다른 지체가 세움을 입고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성령으로 무장된다. 몇몇은 ‘목사와 교사로’ 세움을 받아 양떼를 돌보며 가르친다. 즉 이와 같은 두 그룹(group)의 관계, 말하자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목자와 양떼, 현대에 쓰이는 비성경적 의미의 ‘성직’과 ‘평신도’의 관계는 무엇인가?”

존 스토트는 이 질문에 관해 네 가지 중요한 답변을 한다.

첫째는 교권주의(clericalism)이다. '교권주의'는 성직과 평신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신학적으로 기독교의 장로를 구약의 제사장으로 동일시하며 성찬식을 기독교적 희생으로 간주하는 것은, 3세기 중엽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에 의해 최초로 제기되었고, 동시에 구약에 실제로 존재했던 제사장과 구별을 수반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의 만인 제사장직, 즉 교회 전체의 제사장직으로 대치되었고 기독교의 장로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닌 것과 같이 신약의 사도가 아니며, 교회적인 훈련은 전 교인에 해당되는 것이지 오직 지도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둘째는 반교권주의(anticlericalism)이다. 반교권주의는 교권주의와 정반대의 것이다. 교권주의가 평신도를 무시하고 그들이 존재치 않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라면 반 교권주의는 성직자를 무시하고 마치 그들이 존재치 않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혹은 그들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예는 퀘이커교도(Quakers)와 기독교 형제단(Christian brethren)이다. 이들은 임명받은 목회자를 두지 않고 대신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있어 지역회의나 집회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목회사역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목적의 일부라고 결론지어야만 한다. 우리가 그것을 폐지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은 교회로 하여금 감독자를 갖게 하셨다. 그러나 감독자는 주인이 아니다. 감독자는 교훈과 몸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셋째로 성직과 평신도간에 있음직한 관계는 이원론이다. 성직과 평신도가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서로 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영역을 구별해놓고 어떠한 영역 침범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 이원론의 견해이다. 로마 가톨릭은 아직도 이 입장에서 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신약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심직 한 기도와 감사의 영적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성직과 평신도간에 설정할 수 있는 관계는 섬김이다. 성직은 평신도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교권주의). 그렇다고 성직이 필요치 않다고 평가절하 시켜서도 안 된다(반교권주의). 혹은 다른 영역은 평신도에게 내어 주면서 성직의 영역은 침범을 우려하여 지나치게 방해해서도 안 된다(이원론). 평신도가 교회이며 성직으로 그들을 위하여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교회는 많은 지체와 기관을 가진 하나의 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임명된 성직에 국한될 수 없다. 성직은 평신도가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돕는 것으로서 에베소서 4장 11, 12절의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했다.

## 제 5 장 평신도 사역의 근거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대부분 목회 패러다임(paradigm)은 목회자 한 사람 중심의 독점목회(Monoministry)였다. 지난 역사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가 이끄는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월등한 성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는 결코 바람직한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목회자 개인의 지도력이 효과를 발휘할 때만 교회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에는 슈퍼맨(superman) 유형의 지도자보다는 평신도를 알고 평신도를 교회의 사역현장에 적절히 배치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평신도로서의 바른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참된 목자(牧者)가 필요하다. 향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길은 평신도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 이제 그 방법이 필요하고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평신도 사역의 근거를 논술한다.

### 1. 성경적 근거

교회는 과거의 연장선에서 현재에 서 있고, 다시 미래를 향해 열려져 있는 역사적 존재이기에 급변하는 오늘의 세계적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며 대응하는 작업은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본 항에서는 교회의 여러 사역 과제 중에서 평신도 사역의 필요성을 성경에 의해 근거 지어 본다.

첫째, 교회 구성적 측면에서의 필요하다. 교회는 특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집합체이므로 하나님의 공동체(community)로서 특별한 책임을 위해서 부르



심 받은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책임이 부여되었다. 이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알리고 큰 민족을 이룰 책임도 부여받았다. 이러한 계약 관계는 신약의 교회와 관계를 갖게 된다. 부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책임이 있음을 표현한 말이다. 성직자나 평신도나 막론하고 구별 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교회 구성상 하나님 나라에의 확장의 사명을 가진 것이며, 이런 이유에서 평신도사역의 개발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은사적 측면에서의 필요하다. 성경은 “각각 은사(恩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고 말하고 있다.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肢體)이다. 그리스도의 몸(The Body of Christ)으로서의 교회 원리에서 볼 때 성도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양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영적 분별, 방언, 방언 통역, 사도 돕는 자, 행정의 은사가 나타나며 에베소서 4장에는 전도자, 목사 등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여러 은사가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은사는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교회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교회 성장은 마태복음 28:19,20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명령(the Great Commission)에서 볼 때 우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또한 사도행전 1:8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서 볼 때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제자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리할 때 교회는 성장한

다. 교회 성장의 원리는 학자들마다 다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교회 성장 원리에서 평신도의 역할은 하나같이 중요한 것이다.

미국의 교회성장학자 Carl George는 미래교회를 'Meta-church' 라고 정의하였다. 그에 의하면 메타교회는 '전환기의 교회' '돌아서는 교회' '되어 가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메타교회란 모든 미래적 구조를 지향하는 교회이다. 메타교회의 조직적 원리는 교회의 크기에 관계없이 질(質)을 유지하는 것이다. 메타교회의 사고(思考)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인들을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게 할까 하는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는 일을 강조한다. 특별히 미래교회가 유의해야 할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와 원리이며 성령이 어떻게 역사 하시는가를 평신도에게 가르치고 배우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교회서의 평신도의 역할은 교회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 미래적 확신에 근거하여 볼 때 평신도 사역은 반드시 개발되고 육성되어야 한다.

## 2. 시대적 요청에 따른 근거

인간에 대한 교육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리해왔다. 고대 희랍시대의 소피스트들의 강의와 토론식 교수법,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그 이후의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12, 13세기경의 수도원 교육에서는 주로 스콜라식 교수방법을 통해서 신학이나 철학적 명제들을 학생들의 찬반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 스스로가 결론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지식에 대한 태도를 계발하도록 했다. 그후 17세기에 들어와서 인간교육에 대한 목적, 내용, 방법에 있어서 시대정신과 상황적 요청을 반영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대표적인 이론가들이 Comenius, Rousseau, Pestalozzi, Herbart,

Dewey, Frobel 등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변화된 시대에 따른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들이 요청되고 있다. 최근에 스나이더(Howard A. Snyder)가 미래교회의 동향을 전망한 것 중에서 우선하는 10개 항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1) 제 3세계 기독교인의 급증과, 교세 중심이 제3세계로 이전.
- (2)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적, 실제적 관심의 부흥.
- (3) 종교적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의 성장.
- (4) 목회 리더쉽의 준비모델(equipping model)의 출현.
- (5) 결혼과 핵가족마저도 붕괴할 것이다.
- (6) 여성 목회자와 여성 지도층의 대규모 증가.
- (7) 그리스도인 사이에 생명존중 활동(pro-life activism)확산.
- (8) 새로운 이상으로서 이기주의의 등장.
- (9) 평신도 사역의 성장.
- (10) 교회의 재편성과 그리스도인의 급진적 사회변혁에서의 헌신(獻身)이다.

스나이더의 미래교회 동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대 정황에 따라 의식이 변하고 있으며 이 변화에 따른 공백을 채워 줄 활동과 교육이 필요한데 이는 평신도 사역으로 가능하다. 이런 시대적 요청과 필요에 예견하고 일찍부터 평신도의 시대적 역할에 관심을 가진 이는 로마 카톨릭의 콩갈(Yves M. J. Congar, *Lay People in the Church*, 1951)과 개신교의 크래머<sup>28)</sup>(Hendrick Kraemer, *A Theology of the Laity*, 1958)이다.

---

28) 크래머 교수는 화란의 선교신학자인 동시에 동양종교학자이다. 그는 평신도 운동을 통한 교회갱신을 기하였고 W.C.C의 부설기관인 '에큐메니칼(Ecumenical)연구원'을 개척하였다. 필자는 그의 신학사상을 칼빈주의 신학으로 여과하고 선별하여 수용한다.

평신도 사역자인 넬슨 부부(Virgil Nelson & Lynn Nelson)는 '앞으로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한 내용을 「창조적인 사역들의 목록」(Catalog of Creative Ministries)이라는 책으로 편집해 출판하였다. 이 책은 미국교회와 한국의 몇몇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 프로그램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300개가 넘는 사역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특히 평신도들의 이 주축이 되어 성도들의 필요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5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첫째는, 제자훈련(Discipleship)이다.

이 목록 속에는 성경의 내용과 제자도에 대한 성도들의 욕구가 얼마나 강렬한지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또한 성경을 배우는 소그룹이 다양한 명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세렌디피티(Serendipity), 베헤일 성경 연구(Bethel Bible Series), 평신도 사역자 훈련(Lay Ministry), 리더십훈련(Leadership), 삶 적용훈련,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프로그램, 새신자 훈련 등 성경연구뿐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를 모든 분야에 적용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둘째는, 복음전도(Evangelism)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특징은 주로 분야별,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대단히 전문화되어 있으며, 지원자 몇 사람만 있으면 새로운 선교나 전도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성도들이 선교나 전도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정관념이다.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그 사역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부분을 내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그들의 관심과 사명을 계발해 주고, 일할 만한 현장을 만들어주지 못한 교회의 연구와 노력의 부족이다.

세 번째는, 돌봄(Concern for people)이다.

이 목록에는 독신자사역(Ministry with Singles), 장애인사역(Ministry with the Handicapped), 외국학생사역(Ministry with International Students), 노인사역(Ministry with Seniors), 결혼주선사역(Marriage Encounter)등이 있다.

돌봄이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중 하나이며,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돌봄에는 구체적인 진단과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돌봄의 욕구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욕구이다. 이 사역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상당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Concern for Community)봉사이다.

이 사역은 주로 이웃사회에 음식을 제공하고 무의탁 노인을 돌보고 주택을 관리해 주는 사역이다. 이 사역은 교회의 복음전도를 위한 기반인 동시에 이웃을 돌보고 구제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다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음식제공(Food), 주택사역(Housing), 교육(Public Education), 실업자를 위한 사역(Unemployment), 의료치료사역(Health and Healing) 등으로 교회가 지역사회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풀기 위해 소그룹이 구성된다.

우리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외면했을 때 그 지역의 불신자들이 심한 비난과 함께 얼마나 비협조적으로 나오는지 잘 알고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전도해야한다. 미국의 그 유명한 '새들백'(Saddleback) 교회는 지역사회를 불신자와 예배에 가끔 참석하는 자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교회 주변 지역의 인구가 31,000명이며, 이는 그 도시 전체 인구의 10%라는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교회는 충분히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다.

다섯째는, 지구촌사역(Global Concern)이다.

지구촌사역은 청년들, 선교사 후보생 혹은 의식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지구촌사역은 사실 선교와 직결되는 사역이다. 특히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아들에 대한 관심은 다름 아닌 교회의 사명이요, 책임이라고 보아야 한다. 환경문제, 세계 종교, 이데올로기, 세계 평화문제, 전쟁 역시 교회의 주요 관심사이다.

그 외에도 생활에서 직접 필요한 일들로서 장례식 사역(Funerals Ministry), 교도소 사역(Exodus Ministry), 기도사역(Prayer Team), 직업안내 사역(Careers Ministry)과 재정적인 곤란을 돕는 Casework Ministry와 차량정비사역(Cars Ministry)등이 있어 평신도들의 욕구를 들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 3. 매슬로우 심리이론을 활용한 목회적 근거

미국 심리학회(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대표였던 Abraham Maslow, 1908-1970)는 행동주의(behaviorism)가 세상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의 첫 아기가 출생을 보고는 그의 생각을 바꾸었다. 즉 “아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행동주의자가 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말한 것이다. 그는 신경증환자와 심하게

혼란 된 인간들을 연구함으로써 성격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던 'Freud'와 다른 성격이론가들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그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여야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믿었다. 만약 인간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가를 알려면 발목이 부러졌거나 잘 달리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를 대상으로 연구해야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래서 그는 Tomas Jefferson, Abraham Lincoln, Albert Einstein 등의 49명의 선택된 사람들을 세밀히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본능적인 욕구( instinctoid needs)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보편적인 욕구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하고 우리 자신을 실현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킨다. '매슬로우'는 우리의 사회에서 자아실현을 성취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변화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심리적 건강의 높은 수준에 도달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을 이해하기를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나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믿었고 모든 욕구의 수준과 순서는 생물학적으로 인간본성에 따라 구성되어있다고 보았으며, 인간은 다양한 욕구의 수준에 다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하나의 욕구가 만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로 이동한다고 이해하였다.

이러한 '매슬로우'의 욕구의 위계(hierarchy of needs)는 사닥다리로 무엇을 오르려는 행동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사닥다리에 오르려 할 때 두 번째 단에 오르기 전에 첫째 단위에 발을 올려놓아야 하는 것과 같으며, 오른 다음에는 또 다른 높은 단에다 발을 올려놓아야 올라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간이 더 나은 욕구의 단계로 올라가고 나아가는 것을 '매슬로우'는 자기 실현(self actualization)의 과정으로 보았는데, 그는 "사람은 자신

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진술로 그의 이론을 요약하였고 이를 ‘욕구 단계설’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생리적인 욕구(physiological needs)의 단계이다. 이는 음식, 물, 공기, 수면(睡眠) 및 성(性)과 같은 명백한 욕구이며 이들 욕구의 만족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적인 욕구는 모든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 예컨대 거지들은 생존을 위하여 매일 일생동안 부단히 굶주림의 해결에 노력하며 따라서 결코 보다 높은 욕구를 나타낼 기회를 찾지 못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생리적인 욕구에 대한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생리적인 욕구가 잘 처리되고 나면 안전의 욕구(safety needs)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 안전의 욕구에는 안전, 안정, 보호, 질서 및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해방 등과 같은 욕구가 포함된다. 예컨대 은행 저축량을 늘리고 보험에 가입하며 안전하고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을 손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 안전의 욕구는 엄청난 것도 아니며 꼭 가져야 할 욕구는 아니지만 안전과 안정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하게 된다.

안전의 욕구를 어느 정도 이룩했을 때 소속과 애정의 욕구(belonging and needs)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 어떤 단체에서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복을 입기도 한다. ‘매슬로우’는 오늘날의 사회가 가변적(可變的)이기 때문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점차 어려워진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군중들 속에 살지만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지하도에서나 메가마켓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 쌓여 있지만 그들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매슬로



우'는 이 욕구가 만족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았다.

다음에는 자기존중의 욕구(esteem needs)이다. 이 욕구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히 여겨주기 때문에 갖게되는 자기존중과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게 생각하는 자기존중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외부적으로 얻어지는 자기존중은 명성, 존경, 지위, 평판, 위신 혹은 사회적인 공헌 등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총체적인 특성이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종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 우리의 의상 등에서 혹은 우리가 존경받을 만하고 유능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부(富)와 귀중한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내적으로 혹은 스스로 자기 존중의 의식을 느끼게 될 때, 우리 자신에 대해 안정감을 가진다. 만약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 하는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을 존중할 수 없다.

만약 지금까지 언급한 욕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면 우리는 가장 높은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need for self actualization)에 집중하게 된다. 자아실현은 우리 모든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과 사용이며 우리 모든 소질과 재능의 발휘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비록 이 보다 낮은 수준의 욕구가 만족이 된다 할지라도 자아실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좌절감과 불안감과 불만을 느끼게 된다.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그들이 자아실현을 이루도록 한 심리적 동기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성장동기화(growth motivation) 혹은 메타동기화(meta motivation)라고 불렀다. 접두사 'meta' 는 그 이후(after) 혹은 그 이상(beyond)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따라서 '메타동기화'란 동기화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그 이상의 것으로 움직

인다'는 뜻이다. 한 편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과 그 밖의 평범한 사람들의 동기화를 구분하였는데, 전자(前者)의 경우를 '메타동기화', 후자(後者)의 경우를 결핍동기화(Deficiency motivation) 혹은 D동기화(D-motivation)라 하였다.

이상과 같은 '매슬로우'의 이론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인간은 결핍을 느끼는 존재이다. 유기체내에서는 자신의 어떤 결핍을 만회하려는 동기화 즉 결핍 동기화(Deficiency motivation)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얼마동안 지냈다면 신체 내에 어떤 결핍이 있을 것이다. 이 때 신체 내에서는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 결핍을 채우려는 반응이 일어난다. 즉 우리는 어떤 목표대상(음식)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정한 욕구(배고픔)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그 무엇을 채우려는 동기가 생성된다. 이 동기는 가장 낮은 단계인 생리적인 욕구에만 그치지 않고 안전, 소속과 애정 및 자기존중의 욕구에게까지도 관계되어 일어나고 이것들은 우리에게 결핍된 어떤 것들을 성취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킨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다. IMF 경제관리체제에 들어서면서 한국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기업이 도산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안정을 잃고 정서가 훼손되었으며 인간의 참 가치에 대하여 회의(懷疑)를 갖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기존재의 고귀한 가치보다는 단순한 물리적인 욕구에 대하여 주된 관심을 가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명예퇴직이 늘어나면서 자신이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고독감을 가진 중년 남자들도 늘고 있으며, 인륜(人倫)을 저버리는 사건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사회 통념의 변화는 사람들을 건전한 자아실현의 이상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단지 물질적인 삶에 자신을 적응시켜 가는 방법들을 추구하게 하고있다.

특히 기독교회의 구성원들은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는 특수성과 하나님의 종교라는 뛰어난 윤리성에 따라 여하한 사회 현실 속에서도 남다른 자아실현의 욕구를 자극 받는다 할 때, 성직자와 평신도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고 심각하게 결핍동기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사회 상황 변화에서 예외 될 수 없는 교회 평신도들의 욕구의 단계는 그 종류도 다양화되고 구체화되어지며 그 정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삶과 관련되어 새롭게 생성되는 사회적 욕구는 단지 일시적인 유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단체에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촉구한다.

Fred W. Andea의 책에서 Larry L. Mcswain은 사회학적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Crescive Change이며, 다른 하나는 Purpose Change이다. Crescive Change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고, Purpose Change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변화를 뜻한다. 변화의 세력이 기존의 가치들을 거절할 때 즉, Crescive Change의 요구가 있을 때 변화를 요구받는 편에서는 Purpose Change를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가 흔들릴 때 그 배에 탄 사람은 배가 전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배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할 때 자기 몸을 넘어가는 배의 반대편으로 무게를 주어 배의 위험을 막을 것이다. 기존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배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 넘어지려 할 때 즉, Crescive Change의 충격이 있을 때 배 안의 사람들은 그에 대응하여 반대편에 무게

를 주어 중심을 잡는 일 즉, Purpose Change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에는 변화로 대처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교회는 다양한 변화와 그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제도와 의식이 개혁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평신도 사역을 더욱 개발하여 목회와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새로운 욕구가 충족되도록 지도하고 훈련되어야 한다.

둘째로, 매슬로우의 견해에 있어 어느 한 욕구의 단계에서 발생한 결핍의 문제가 해소되고 나면 그 결핍에 대한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의 요소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미 만족된 욕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도록 하여 결국에는 자아실현을 하도록 자극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을 자아 중심적인 것과는 다르게 생각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사람들은 일의 특권이나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오히려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메타욕구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을 알리는 말이다. 이 부분은 자원하여 사역하는 평신도들의 메타욕구를 만족시켜주어야 하는 사안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말로서 교회와 평신도 지도자가 알아야 할 중요 항목이다. 오늘날 전통적인 교회는 이 항목에 비중을 두지 않아 변하는 사회에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새로운 진전이 없이 답보와 퇴보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과거의 전통만을 고집하고 지난날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세대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거나 여과하지 못한 채 과거를 회상하고 거기에 침몰되어 있다. 그러나 21세기 오늘의 사람들은 새로운 욕구를 내어놓고 있다. 그들의 다양하고 새로운 욕구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키도록 돕는 것이 지혜이고 또 교회의 일이다.

George Bana는 21세기의 욕구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뒤집어 놓은 것으로서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만족을 위한 희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좋은 길이다.
3. 많은 양보다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
4. '돈' 보다는 '시간'이 중요하다.
5. 엄격한 통제가 불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다.
6. 점점 다양하고 더 독특한 것을 추구하는 개성시대가 도래한다.
7. 전통은 무시되고 자율적인 선택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게 된다.

향후 교회는 위에서 지적한 새로운 변화를 과연 어떻게 수용하고, 충족시켜 나가야할지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변화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며 모든 변화가 그간 소중히 간직해 온 신앙의 후퇴를 동반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남 성도와 여 성도가 서로 마주 볼 수 없도록 그 중간에 담을 막고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 있었고, 서구에서는 피아노의 소리가 경박하고 불 경건하다 하여 교회 악기로 사용을 금하던 시절도 있었고, 찬송가도 그간 부르던 무(無)박자 개념의 그레고리오 성가(Gregorian Chant)를 부르다가 음악이론들이 체계화되고 박자 개념이 도입되자 4박자 곡을 부르게 되었으며, 특히 4박자 곡의 교회 음악에 3박자 곡을 도입하여 교회음악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 3박자 찬송을 거부하는 당시 성직자들에게 3박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설하여 3박자 곡을 허락 받은 거짓말 같은 사실의 역지 과정을 거쳤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논리와 광경을 보고 들으면 웃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교회에서는 매우 진지한 신앙의 한 표현이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고 새로운 욕구들을 해결할 대안을 능동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교회가 19세기에 경이적인 부흥을 맛보았다가 20세기 사회의 변화, 물질적인 풍요, 기술의 발달, 개인주의의 팽배 등으로 인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자 많은 성도들은 교회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20세기말부터 시작된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고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하자 미국교회는 다시 일어서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교회가 미국의 교회를 견학 가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새들백교회, 월로우크릭 커뮤니티교회, 새소망교회 등 미국의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이 좋은 실례이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 명성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주의하고 성도들의 영육 간의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제 6 장 요약 및 결론

개신교는 그 본질에 있어 계속하여 개혁되어가야 하는 개혁교회이면서도 이미 16세기초에 루터가 교황을 정점으로 한 성직계의 인위적인 3개의 “지푸라기 벽”들<sup>29)</sup>을 허문 뒤 종교 개혁자들의 피와 수고의 결정으로 교회내의 평신도에게 다양한 사역을 위한 길들이 제공되었지만,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는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조류에 따라 말씀의 담당자인 성직자들이 주축이 되어 움직이는 교회구조와 인식 하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다.

성직자가 중심이 된 교회 모습은 상당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시각 또한 만만치 않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되는 요인중의 하나가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평신도들을 ‘동결된 백성’(Frozen People)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교회를 위한 성직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헌신(獻身)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와 근거를 지닌 채 설득력 있게 우리 곁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제 교회는 성직자와 함께 평신도가 교회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해야하는 시대를 맞은 것이고 또한 그것이 원리적으로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는 한국교회 목회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신도의 사역의 근거를 성경에 근거하고

---

29) 세 가지의 “종이 지푸라기 벽”은 (1) 세속권에 대한 영적인 인위의 벽으로서, 이는 부정과 부패에 대한 세속권의 위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벽, (2) 교황의 성경해석 독점권의 벽으로서, 성경으로 그들의 죄악을 정죄 하는 것에서 보호하려는 벽, (3) 교황의 종교회의 소집권의 벽으로서 종교회의가 그들을 위협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벽 등이다.

(심일섭, “평신도와 한국교회의 미래”), p.158.

요한 칼빈의 교회관에 주목하여 연구 고찰하였다. 이제 본 고(考)의 전체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결론을 내린다.

## 1. 요약

현대를 교회사 측면에서 볼 때 평신도 르네상스(Lay renaissance)시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 평신도의 역할은 평신도의 사역에 대한 소명의식과 목회자의 평신도 훈련과 은사 발견이라는 주제가 일치될 때 극대화된다. 향후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평신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될 것이다.

문제는 교회가 지난 2천년 동안 대개 유능한 교역자(敎役者) 양성에 주력하는 동안에 평신도의 다양한 은사(恩賜, A gracious present)의 활용은 오해된 교리의 적용으로 금기시하였거나 도외시되어 왔다. 반면에 사회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이제는 전통적인 교역자의 역할만으로는 목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위기는 바로 초대 교회이후 교회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평신도의 활동영역이 줄어든 결과이고 이 평신도의 실지(失地) 회복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의 과제이다.

이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목회구조가 필요하다. 즉 성직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동역 하는 개선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곧 목회자의 역할과 함께 평신도의 역할이 강조되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다.

본 고(考)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요한 칼빈'의 교회는 직임(職任)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이다. 칼빈은 네 가지 형태의 직분을 말하고 있다. 즉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인데 직임의 제일 첫 형태는 목사이다. “나는 목사(牧師)들이 교사(敎師)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한 칼빈은 1564년 5월 27일 죽을 때까지 28년간 교역자(敎役者)로서 목회활동을 하였다. 당시 칼빈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평신도 교육이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제네바 요리문답서’를 만들었고 1559년 6월에 드디어 ‘제네바 대학’을 설립하였다. 이 대학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함께 있는 현대 교육의 시초가 되었다.

칼빈의 평신도 교육의 교육목회적 필요성은 교권(敎權)과 권위주의에 의해서 그간 외면되어 왔지만 그래도 끊이지 않고 교회사 속에서 요청되어 오다가 최근 평신도가 교회 사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요청과 필요에 의해서 평신도 사역이 한층 더 주목받게 되었다.

평신도 사역에서의 평신도란 일반적으로 성직자(聖職者)와 구별된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평신도는 영어로 Laity이다. Laity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chosen people)을 의미하는 성경의 ‘ $\lambda\alpha\omicron\varsigma$ ’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성직자와 구분하는 평신도의 개념보다 우선하고 상위(上位)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원리적으로 성직자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다 평신도들이다.

한국교회가 평신도 사역을 전개해 감에 있어 교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장 미묘한 과제로 대두되는 문제는 평신도와 성직자와의 관계성이다. 성직자와 평신도는 서로 다른 존재양식(存在樣式)과 각기 다른 임무를 가지고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전(全) 교회적인 사역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목회 패러다임(paradigm)은 목회자 한 사람 중심의 일인목회(Mono ministry)로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즉 교회지도자는 슈퍼(super)형의 지도자보다는 평신도를 바로 이해하는 참

된 목자(牧者, shepherd)가 필요한데 이는 교회의 일반적 구성원이 바로 평신도들이기 때문이다. 이 평신도를 학문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이에 평신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근거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고(考)는 평신도 사역의 학문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성경의 원리와 교회성장 그리고 시대적 요청 등 여러 필요성을 논하는 중에 미국 심리학회(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대표였던 Abraham Maslow의 제3세력의 심리학 즉 욕구의 위계(hierarchy of needs)에 의한 자기 실현(self actualization)의 과정에서 유기체내의 어떤 결핍을 만회하려는 결핍동기화(Deficiency motivation)이론과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성장동기화(growth motivation)이론을 적용하여, 작금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을 잃고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자아실현의 욕구를 접어두고 단지 살아가기 위해 현실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하려 했다. 이런 ‘매슬로우’의 시각(視覺)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실크로드’(silk-road)에서 ‘테크로드’(tech-road)로 표현되는 사회를 살고 있다. 이 시대는 방법을 아는 ‘know how’의 시대라기보다는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아는 ‘know where’의 시대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통과 고전을 중요시 한 예전 사람들과는 달리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교역(敎役)은 목회자 한 사람의 몫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재능과 특징을 갖춘 평신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다.

이제 오늘의 한국교회는 평신도의 위상과 역할의 실재를 바로 적용하고 교회와 세상의 이해를 통해서, 수단(手段)이 아니라 목적(目的)으로서의 평신도와

평신도 사역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평신도가 교회의 부흥이나 성장의 수단  
대상이 아니라, 평신도의 사역과 그 역할 자체가 목회의 본질임을 의미한다. 따  
라서 평신도는 기능적인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고유한 의미를 갖는 교회의  
한 영역(領域)임을 인식하고 묻혀버리고 가리워진 무한 가능성의 평신도사역을  
계발(啓發)해야한다.

## 2. 결론

‘TIME’지가 1983년 올해의 인물(Man of the Year)로 컴퓨터를 선정한 후  
과학 기술의 혁명, 특히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 구조와 인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해있고, 교회는 공동체로  
서의 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평신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  
게 된 것은 아주 희망적인 사실이다.

한국교계의 유능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방송설교자이기도 한 ‘지구촌 교  
회’의 ‘이동원’ 목사는 1999년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 강연에서 한국교  
회의 건강한 평신도 상(象)의 결여를 지적하면서,

“이런 우리들의 가슴아픈 현실에도 불구하고 20 세기말에 와서 한국교회 안에  
주목할 만한 실 날 같은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 에베소서 4장  
의 말씀처럼 ‘어떻게 평신도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 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피동적인 봉사에 그치던 평신도의 역할이 전문적  
이고 다양한 사역에까지 능동적으로 확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고에서 밝힌 대로 이제 평신도는 교회의 제반 사역에 더 이상 참여 불가(不可)하거나 사용 불능(不能)의 자산이 아니라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잠재력 있는 하나님의 자원임을 성경에서 확인하였고 ‘요한 칼빈’의 교회관으로도 그 타당성의 건재함이 입증되었다.

이제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고 평신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평신도는 초기부터 성령을 통한 교회갱신의 실천자로 소명된 백성이다. 교회가 ‘평신도’ 자체를 하나의 ‘소명’으로 자각하고 평신도를 목회의 동역자(同役者)로 교육하고 목회 할 때 평신도는 자신의 고유한 사명을 확신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명심할 것은 교회나 평신도가 교회의 전통(傳統)이나 관습(慣習)을 이유로 평신도의 정당한 위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평신도 스스로가 그 책임을 회피한다면 평신도의 존재의미는 복원되지 못할 것이며, 교회는 다시 한 번 성장이 멈춘 긴 동면(冬眠)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평신도 사역의 완성은 아직 요원하지만 참된 평신도가 참된 교회를 만든다할 때 바로 교육된 평신도가 있는 교회야말로 실제로 옳은 교회이다. 따라서 평신도 사역은 평신도들이 목회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며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는 입장에서 교육적인 과제이다.

필자는 ‘요한 칼빈’의 교회관에 근거하여 교회 공동체내에서 평신도의 사역과 근거의 타당성을 교육목회적 입장에서 정립하려 노력하였으나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고만 것 같다. 추후 더 좋은 연구와 활동들이 있어 한국교회의 옳은 성장을 주도할 유능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한다.

## 참 고 문 헌

- 권달천(1981). 교회성장원리. 서울 : 생명의 말씀사.
- 권상훈(1995). 평신도훈련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석(1992).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서울 : 한국기독교학생회.
- 김길성(1996). 교회론 강의안. 서울 : 총신대학신학대학원.
- 김득룡(1990). 평신도자질개발을 위한 성경연구세미나. 서울:총신목회신원
- 김득룡(1990). 평신도를 위한 성경흐름연구의 필요성. 서울:총신목회신학원.
- 김병원(1993). 목회학. 서울 : 개혁주의 신행협회.
- 김선도(1984). 교회성장을 위한 지도력. 서울 : 광림출판사.
- 김성환(1980).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서울 : 정음출판사.
- 김시업(1999). 생활적응을 위한 심리학. 서울 : 문음사.
- 김연택(1997).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 도서출판 제자.
- 김영국(1987). 그리스도의 공동체. 서울 : 생명의 말씀사.
- 김영재(1985). 칼빈의 교회관. 서울 : 풍만출판사.
- 김영채(1996). 사고와 문제해결의 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영진(1979). 요한 칼빈 주석전집.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 김일섭(1976). 현대의 평신도 신학과 한국교회. 서울 : 기독교 사상.
- 김현희, 박경범(1997). 새들백 교회 이야기. 서울 : 도서출판 디모데.
- 대한상담학회(1998).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민경배(1982). 목회신학원론.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 민경배(1982). 세계기독교 교회사.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 박건택(1990). 신학정론 4권. 서울 : 도서출판 바라.
- 박봉량(1990).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 박영희(1985). 바울신학. 서울 : 지혜문화사.
- 박윤선(1987). 성경주석 바울서신. 서울 : 영음사.
- 박윤선(1974). 신학지남. 제41권 2집.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 박완희(1998). 수업총론. 부산 : 경성대학교 출판부.
- 박형룡(1977). 교의신학 VI. 서울 : 한국 기독교 교육연구회.
- 손승희(1986). 기독교교육.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 송명자(1999). 발달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신복윤(1993).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 성광문화사.
- 신복윤(1991). 기독교 신학개론. 서울 : 성광문화사.
- 신복윤(1989). 기독교 교리사. 서울 : 성광문화사.
- 심일섭(1976). 현대의 평신도신학과 한국교회. 기독교 사상.
- 심일섭(1994). 花甲記念論文集. 국학자료원.
- 오인택(1984). 기독교 교육. 서울 : 종로서적출판사.
- 옥한흠(1985).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 두란노서원.
- 유동식(1979). 평신도 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 유동식(1994). 평신도 신학과 교회갱신. 서울 : 평신도 신학연구소
- 유상욱(1997). 평신도 사역 활성화를 위한 목회지도력연구.  
고려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준관(1985). 교회 선교 교육. 서울 : 전망사.
- 은준관(1985). 기독교 교육론. 서울 : 기독교교육협회.

- 은준관(1975). **선교와 평신도 신학**. 서울 : 복된말씀 제 22권.
- 이규환(1993). **영한기독교 강요**. 서울 : 기독교성문출판사.
- 이계준(1985). **흠어지는 교회**.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 이노균(2000). **한국교회의 설교에 대한 연구**.  
Fuller Theological Seminary 박사학위논문.
- 이달석(1997). **교육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이동원(1999). **목회자 협의회 강의안**. 서울 : 국제제자 훈련원.
- 이상규(1998). **교회개혁사**. 서울 : 성광문화사.
- 이선우, 정종진(1997). **인간성격의 이해**.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이성희(2000). **교육교회**.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회.
- 이양호, 박종숙(1993). **칼빈**. 서울 : 도서출판 나단.
- 이종각(1997). **교육사회학 총론**. 서울 : 동문사.
- 이종성(1981). **평신도와 교회**. 서울 :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 이창우(1981). **성서적 교회**. 서울 : 성광문화사.
- 이홍근(1978).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 분도출판사.
- 이훈구(1991). **학습심리학**. 서울 : 탐구당.
- 정삼지(1989). **성공적인 목회사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 정성구(1992). **칼빈주의 연구**. 서울 : 한국칼빈연구회.
- 정성구(1995). **칼빈주의 사상대계**. 서울 : 총신대학출판부.
- 정일웅(1992) **기독교 신앙교육**. 서울 : 목양출판사.
- 주정오(1982). **교회성장을 위한 평신도 훈련계획**. 총신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최동근, 양용철, 박인우(1998). **교육방법의 공학적 접근**. 서울 : 교육과학사.
- 하문호(1980). **기초교의 신학**. 서울 : 삼영서관.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1996). **한국기독교의 역사 I. II.** 서울 : 기독교문사.
- 한철하(1976). **고대 기독교 사상.**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 황선욱(1998). **평신도 지도력개발을 위한 제자훈련.** 고려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olfs,R.(1964). ***The Church is different.*** Harper & Row Pulisher.
- Andea,F.W.(1990). ***Effective Ministry in a Changing World.***  
Nashville Broadman Press.
- Bavinck, H.(1913). ***Gereformeerde Dogmatiek IV.*** Kampen.
- Cambell,T.C. & Reiersen,G.B. (1981). ***The Gift of Administration.***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 Dewey,J.(1959). ***Selection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Columbia University.
- Gibbs,M. & Morton,T.R. (1964). ***Gods Frozen People.*** Fontano Book.
- kung Hans. (1968). ***The church.*** London : Burns & Oates.
- Sherrill,L.J.(1953).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The Macmillan Co.
- Snyder, H.A. (1986). ***Foresight.*** Thomas Nelsom.
- Virgil & Nelson, L.(1983). ***Catalog of Creative Ministries over 300  
Ideas that work Valley George.*** Judson Press.



# Thesis

## The Considerations about the foundation of the Laity Ministry (centering John Calvin's ecclesiastical view)

Kim, Gab - Soo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Education

Kyungsung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 Lee, Soo - Sik

### Abstract

We call the present age the Lay Renaissance considering the ecclesiastical history. The role of the laymen is supposed to be maximized if the theme of the calling consciousness of the laymen about the ministry and that of how we train the laymen in a church.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role of laymen in a church and will become more important when the church perform its fundamental work.

During the two thousand years of the ecclesiastical history, much effort has been put into the training to produce more competent ministers. However, God's people, which is precious resources, has been excluded from the aspects of educating and training. The society has been extremely diversified and specialized. So this too differentiated social structure made the churches' ministry less effective.

The crisis of the churches is resulted from the neglect of developing the laity ministry which played the centric role in the early churches.

The laymen in a church of today are expected to perform many tasks as responsible members in the church rather than as helpers for they are sent into the world following the model of Jesus Incarnated. The laymen should realize identity as a church, the blessed community which is the holy body of Christ. Their ministry is from divine calling they obeyed.

The church of John Calvin i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is thesis. In his church giving positions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J. Calvin referred four forms of position which were pastors, teachers, elders, deacons.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position is 'pastor'. " I don't oppose the fact that a pastor also has the title of a teacher." said J. Calvin who carried out ministerial work until he died at 1564. 5. 27. His ministry can be summarised into preaching, sacrament, discipline and educating. Calvin thought religious education was essential in his ministry. So he made the "Geneva Catechism" and established Geneva University which became the foundation of modern education.

When we keep developing the laity movement, the subtle problem to solv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ymen and the ministers. A church is neither composed of only ministers, nor of only laymen. A minister and a layman have different form of existence from each other, but they have the same purpose. The laity movement is far from the class consciousness. It is the whole ecclesiastical mission completing the Kingdom of God.

Until now most Korean ministerial paradigm was the Mono ministry. But now the churches wouldn't need a super leader but a genuine pastor who understands the laymen deeply because a church's general members are the laymen. Educating the laymen on the basis of biblical truth is making a church strong and powerful and for this purpose, we need wholesome knowledge about the laity ministry.

In this thesis, the theory of deficiency motivation and growth motivation (related to Abraham Maslow's self-realization in the hierarchy of needs) is adapted. Today, many people in Korea are suffering from poor economic state and unstable self-identity. From this point, A. Maslow's view shed a light in understanding the lives of Korean Christians at this moment in time.

We are living in 'tech-road' society coined from 'silk-road' in which 'know-where' is more important than 'know-how'. So the people in this generation calls for new paradigm and to meet the needs we must make the laymen partners in church work. Now is the time for all of us to

look back on the successful laity movement in early Korean churches. We have to adapt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laymen to church works and through understanding a church and the world we should make sure the roles of the laymen as an aim, not as a means.

It is essential that we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laymen. Realizing the fact that the laymen themselves are the distinctive domain of a church we should keep developing the laity ministry which has limitless potentiality.